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4th Signature Distillery Edition

발렌타인 17, 새로운 컬러로 말하다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런칭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Pop-up Bar

발렌타인 팝업바, 그 한 달간의 여정

Special Interview

가수 김조한

발렌타인과 아티스트의 만남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The True Heritage of Two Brands

발렌타인 & 스타인웨이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신만의 진정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다

발렌타인은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교하고 완벽한 블렌딩을 일관되게 지켜옴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선사해 왔다. 이제 발렌타인은 '자신만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STAY TRUE), 깊은 인상을 남기라(LEAVE AN IMPRESSION)'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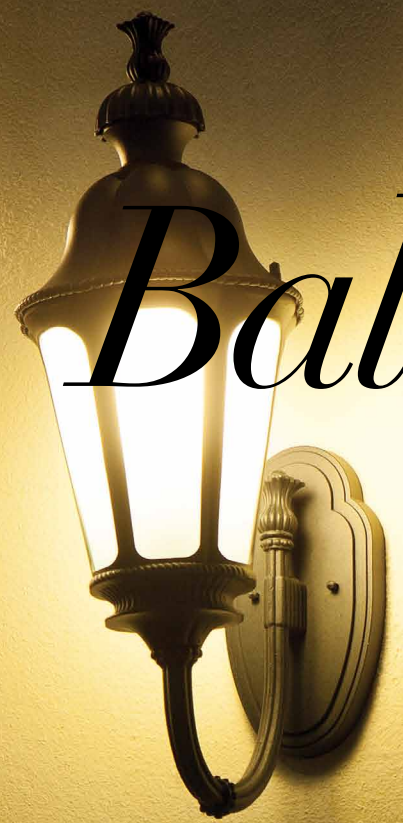
누군가를 따라가는 길은 순탄하다. 순응하는 삶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반면에 누군가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거나 새로운 감명을 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앞선 사람의 감명을 그대로 되풀이하기 보다는 자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감명을 남길 수 없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보고 그 생각에 충실해야 한다. 주위의 의견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 그리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자신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것을 고수하며 한길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발렌타인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을 통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발렌타인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을 대변하기도 한다. 발렌타인만의 진귀한 블렌딩을 창조해 낸 조지 발렌타인은 위스키에 대한 직관과 열정을 바탕으로 2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세월을 초월하는 최상급 블렌드를 유지해 왔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과 정통성을 고수하며,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어 내겠다는 본인의 신념과 열망을 후대 마스터 블렌더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발렌타인만의 '아트 오브 블렌딩', 그 근원이 되고 있다.

결국 당신 스스로를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개인으로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면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가치,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발렌타인이 말하는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은 단순히 발렌타인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일 뿐만 아니라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신이기도 하다.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한다면 그 자체가 당신의 삶에 원동력이 될 것이며,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과 진정한 감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0여 년 전 조지 발렌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Geo Ballantine



Ballantine's Magazine

7th. vol.

Heritage

07. The True Heritage of Two Brands

진정한 명작을 탄생시키는 브랜드 헤리티지, 발렌타인 & 스타인웨이

Lifestyle

15. Share the Value, 2013 BMW Masters

발렌타인과 골프의 귀중한 가치를 공유하다, 2013 BMW 마스터스

18. Ballantine's KPGA Awards 2013

프로 골퍼들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
발렌타인 2013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

22. Column for Golfers

퍼터의 선택 요령 / KPGA와 페르노리카 코리아, 그 의미 있는 동행

Innovation

27.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Editions

스코틀랜드의 4가지 컬러를 담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38. Innovative Way of Ballantine's, Ballantine's Pop-up Bar

위스키 최초의 팝업 스토어
발렌타인 팝업바

48. Special Interview

발렌타인 17처럼, 오랜 시간을 걷다
가수 김조한

CONTENTS



07



38



64



85

Art of Blending

62. Colorful Collaboration, 5 Colour Art Glass

발렌타인과 아티스트의 만남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64. 6 Colorful Recipes for Ballantine's 17 Cocktail

발렌타인 17, 그 숙성의 깊이를 느끼다
6가지 위스키 칵테일 레시피

66. Ballantine's 17 Signature Lunch & Dinner

오감을 채우는 환상적인 마리아주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 디너

68. Ballantine's 17 Mentoring @Grand ciel

발렌타인의 예술적 블렌딩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Ballantine's & Women

73. To Lady, Colorful Rhapsody of Ballantine's

여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발렌타인의 랩소디

Ballantine's Pick

85.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

88. EPGA / 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Journey to Ballantine's

한겨울,

좋아하는 위스키 한 잔을 음미하며 생각에 잠기는 일.
또는 아끼는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며 그 선율에 생각을 잠시 맡기는 일.
그것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Heritage



The True Heritage of Two Brands

진정한 명작을 탄생시키는 브랜드 헤리티지 발렌타인 & 스타인웨이

명품(名品)이란 값비싼 것이 아니다. 세대를 거칠수록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세대에 걸쳐 그 가치와 향기가 일관되게 전해지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공정과 장인들의 섬세한 솜씨로 탄생하고 오직 그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 그보다는 다음의 위대한 두 브랜드가 걸어온 시간을 더듬어 보는 편이 이해하기에 더 좋을 듯하다.

명작은 숫자로 말한다

여기, 2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위스키 블렌딩을 이어 오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이 위대한 블렌딩은 스코틀랜드의 4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40여 종의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긴 세월 동안 고귀한 보틀 안에 담겨진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호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단 5명뿐이다. 170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떠오르는 제품이 바로 이 브랜드의 대표작이며,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단 100병만 생산되는 40년산을 탄생시키며 그 남다른 가치를 입증했다. 바로 세계적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이자 수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이다.

발렌타인과 분야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브랜드는 누구나 사랑하지만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명품이라는 점을 많은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콘서트 홀에서 사용하는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이 브랜드의 제품은 12,000개 이상의 부품의 정교한 조화와 약 128가지의 특허, 1,000가지 정도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브랜드의 피아노는 약 300여 명의 손을 거치며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탄생된다. 이를 총괄하는 마스터 역시 역사상 6명만이 존재한다. 올해로 창립 161주년을 맞이하며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전 세계의 콘서트 홀을 빛내며 세계적인 연주자들에게 끝없는 동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지존의 1위 피아노 브랜드, 바로 스타인웨이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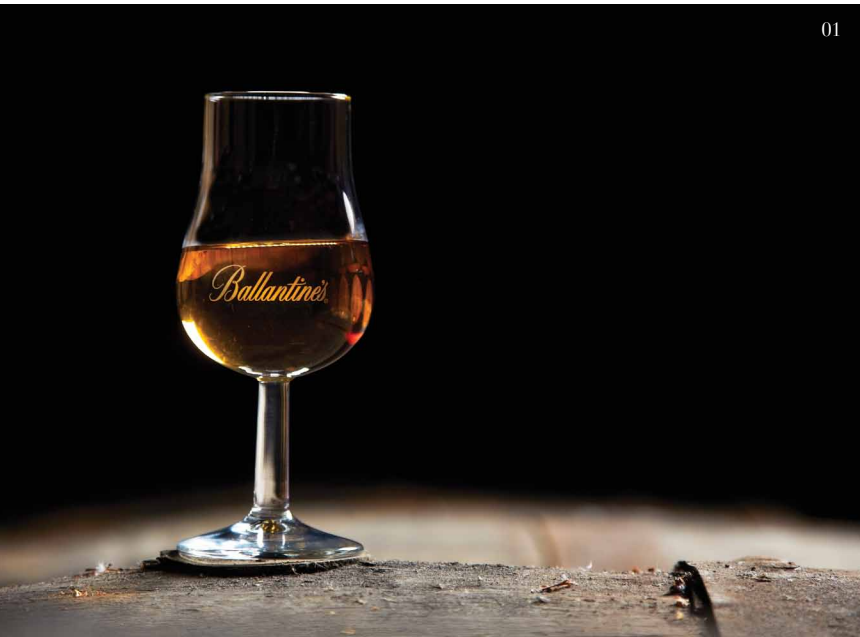
01. 위스키 애호가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블렌디드 위스키, 발렌타인

02. 전 세계 유명 연주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명품 피아노, 스타인웨이

>>

01. 40여 종의 최상급 몰트와 그레이н 위스키에 마스터 블렌더의 노력이 더해져 발렌타인만의 예술적인 블렌딩 스타일이 완성된다
02. 03. 12,000개 이상의 부품과 독자적이고 정교한 기술, 마스터 디렉터의 장인정신의 조화를 통해 스타인웨이만의 독보적인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다

01



명작은 세월이 쌓는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한 작은 상점에서 세계적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Ballantine's)' 역사의 첫 장이 열린다. 1827년, 당시 19세의 나이로 첫 상점을 열고 위스키 사업을 시작한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이 그 주인공이다. 조지는 에든버러의 식료품상이자 와인 위스키 상인이었던 앤드류 헌터(Andrew Hunter) 밑에서 13세부터 견습 생활을 시작했다. 5년간의 견습 기간 동안 조지 발렌타인은 훌륭한 와인을 구별해 내는 능력과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사람들과 신사적으로 거래하는 노하우와 투철한 서비스 정신 등을 익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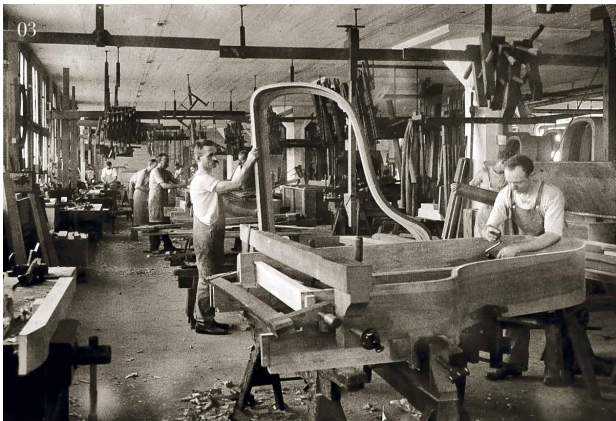
작은 상점으로 시작한 위스키 사업은 그 당시 모험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으며, 완벽한 환경에서 위스키를 숙성, 관리하는 작업은 큰 도전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지는 몰트와 그레이н 위스키를 이상적으로 혼합시킨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과 남다른 열정으로 1853년 마침내 고연산 블렌디드 위스키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발렌타인은 프리미엄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로서의 독보적인 브랜드 유산을 쌓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발렌타인은 일찍이 영국 왕실에도 인정을 받은 품격 높은 브랜드다. 1895년에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빅토리아 여왕이 왕실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증서이자 고급 위스키로서의 위상을 증명하는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했으며, 1938년에는 스코틀랜드 왕립 문장원에서 '그랜드 오브 헤럴딕 암즈(Grant of Heraldic Arms)' 문장과 함께 발렌타인을 '스코틀랜드 귀족 사회의 품격 있는 브랜드'로 인정하기도 했다. 조지 발렌타인의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선지력, 차별화된 사고, 투철한 장인정신은 오늘날까지 폭넓은 사랑과 위스키 애호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위스키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853년,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 온 헨리 E. 스타인웨이(Henry E. Steinway)는 뉴욕 맨해튼의 골방에 스타인웨이 & 선즈를 설립했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콘서트 홀과 스테이지 위에서 빛나는 세계적인 명기, 스타인웨이의 역사는 시작됐다. 가구 제작자였던 헨리는 이민 오기 전 이미 독일에서 피아노를 만들었으며, 회사를 설립할 즈음에는 이미 482대의 피아노를 만든 상태였다. 회사 창립 후 처음 제작된 483호 피아노는 뉴욕의 어느 가정에 500달러에 팔렸으며, 그 피아노는 2001년 현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헨리는 회사 설립 이후 40년 동안 아들과 현대적인 피아노를 개발했다. 128개 발명 특허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 시기에 개발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발명 가운데 다수는 저명한 물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의 음향 이론 등 새로 나온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혁명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술로 곧 스타인웨이는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 등 전시회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을 수상한 뒤, 1867년에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명예 대상을 수상하며 제조 공법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스타인웨이는 현재 스타인웨이 뮤지컬 인스트루먼츠(Steinway Musical Instruments, Inc.)의 계열사로서 보스턴(Boston)과 에섹스(Essex)라는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853년 뉴욕에서 창립되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난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스타인웨이 피아노, 이 놀라운 명품의 사운드는 라흐마니노프, 루빈스타인 호로비츠를 비롯하여 존 레논, 다이애나 크롤, 허비 행크, 당 타이 손, 랑랑에 이르기까지, 당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에게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극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



THE HISTORY OF TWO HERITAGE BRANDS

발렌타인과 스타인웨이가 쌓아 가는 불변의 헤리티지

Ballantine's

1810 글렌버기 증류소, 위대한 역사의 시작

스코틀랜드의 심장부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글렌버기 증류소가 문을 열었다.

1827 발렌타인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린다

발렌타인의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이 19세의 나이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첫 상점을 열고 글렌버기 증류소에서 만들어 낸 위스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1895 왕실이 보증한 위스키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조지 발렌타인에게 왕족 칭호를 내리고, '로알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했다.

1930 발렌타인, 마스터피스를 발표하다

'발렌타인 17(Ballantine's 17)'이 출시됐다.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맛의 이 위스키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38 문장원에서 선사한 영광의 상징

스코틀랜드 문장원이 조지 발렌타인 & 패밀리에 '그랜드 오브 헤럴딕 암즈(Grant of Heraldic Arms)' 문장을 수여했다.

1989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발렌타인 17이 최고급 위스키로서 국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이끌기 시작했다.

2008 발렌타인 챔피언십, 국내 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쓰다

총 상금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글로벌 스케일의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국내 골프의 품격을 높였다.

2012 매년 단 100명만 한정 생산되는 '발렌타인 40년' 출시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 '발렌타인 40년'이 출시됐다.

2013 네 번째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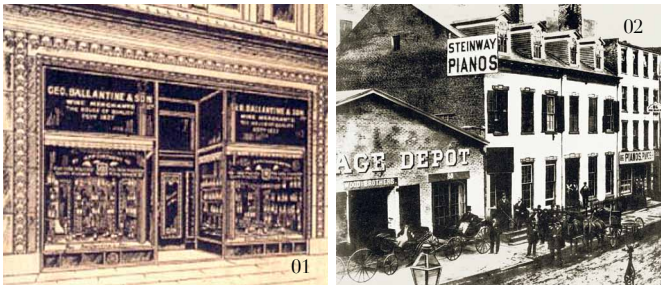
발렌타인 17의 시그니처 몰트를 한 가지씩 강조하여 선보이고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중 그 네 번째, '발렌타인 17 글렌토크스 에디션'이 출시됐다.

NOW 발렌타인의 현재

국제 주류 품평회 IMSC로부터 최고상인 '골드 베스트 인 클래스(Gold Best in Class)'를 수상한 것을 비롯, 지난 12년간 80여 회 이상 수상하며 최고의 위스키로 인정받고 있다.

>>

01. 에든버러에 위치한 조지 발렌타인 최초의 상점
02. 뉴욕 맨해튼에 문을 연 스타인웨이 최초의 매장



STEINWAY & SONS

1853 스타인웨이 & 선즈, 위대한 선율의 시작

헨리 E. 스타인웨이가 뉴욕에서 아들과 함께 'Steinway & Sons'를 설립했다.

1867 국제적 명성이 울려 퍼지다

미국, 유럽 등 다수의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뒤,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명예 대상을 수상하며 제조 공법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880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룬덴바크 공장 설립

헨리의 아들 세오도어와 윌리엄이 함부르크에 제2의 공장을 만들어 유럽과 남미 전용의 피아노를 생산하면서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했다.

1953 전쟁도 막지 못한 장인정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룬덴바크 공장은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악기와 초기 기록 대부분을 잃는 등 아픈 역사를 딛고 1948년부터 다시 재개. 마침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1988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노

유명 가구 디자이너인 웬델 캐슬이 9개월에 걸쳐 완성한 디자인이 반영되고, 스타인웨이를 연주하는 800여 명의 피아니스트들의 직필 사인이 새겨진 50만 번째 피아노가 탄생했다.

1991 전 세계 공연장을 채운 스타인웨이 사운드

유럽에서 남미, 일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도시 각지를 순회하며 제조 번호 50만의 그랜드 피아노 투어를 시작했다.

2003 불멸의 가치를 이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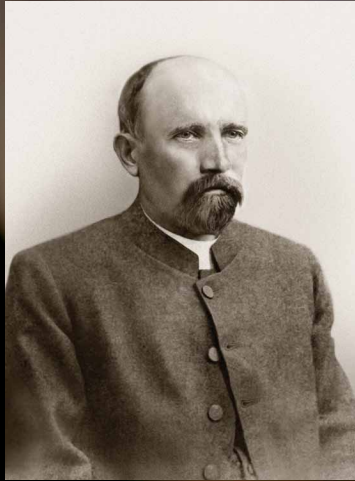
100여 개 이상의 특허로 100년 이상 세계 명품 피아노 시장 1위를 유지하며 창사 150주년을 맞이하였다. 리미티드 에디션 그랜드 피아노 2종이 제작되었고,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샤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그 디자인을 맡았다.

2013 16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아라베스크' 출시

세계적인 가구 공예가 다코타 잭슨의 손길과 영혼이 담긴 스타인웨이 160주년 기념 한정 모델 '아라베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

NOW 스타인웨이의 현재

지난 160여 년 동안 헨리 E. 스타인웨이의 장인정신에 입각해 세계 유수 공연장 피아노의 98%를 점유하며, 전 세계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피아노로 찬사를 받고 있다.



“Create a Truly exquisite Ballantine’s blend.
But only when the time is right.”

진정으로 훌륭한 발렌타인 블렌드를 만들어라. 단 때가 되었을 때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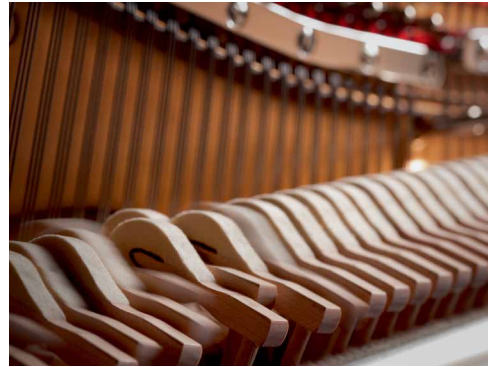
_ 발렌타인의 창업자, George Ballantine (1808~1891)

명작은 정신이 낳는다

발렌타인이 전 세계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최상의 원료, 명장의 블렌딩, 숙성(aging)이 만들어 낸 맛의 비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엄선된 40여 가지의 최상급 원액이 마스터 블렌더의 예술적인 블렌딩을 거쳐 수작업으로 선별된 오크통에서 오랜 기간 숙성을 거치면, 다양한 맛과 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발렌타인만의 세련된 풍미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명실상부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작이자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인 발렌타인 17은 부드러우면서도 균형 잡힌 블렌딩의 깊은 맛과 향이 오랜 여운을 남겨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퍼 프리미엄급 스카치 위스키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 타협할 수 없는 맛과 시대를 초월한 블렌딩의 일관성은 마스터 블렌더라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위스키를 제조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헌신과 끈기로 지켜보며 그 전통과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숭고한 수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약 1,000가지의 향을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을 맡는 것만으로 각각의 원액을 구분해 낸다. 이 역할은 200년 동안 단 5명에게만 허락되었다. 특히 2012년에 선보인 ‘발렌타인 40’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과 마스터 블렌더들의 집념과도 같은 염원으로 끝끝내 탄생된 고귀한 명작이다. 40년의 세월 동안 위스키 원액의 약 80%가 증발해 버린다는 것과 모든 생산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발렌타인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이 진귀한 보틀을 매년 전 세계에 단 100병밖에 선보일 수 없는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다.



>>
매년 단 100병만 생산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정수,
발렌타인 40년



>>
한 대의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완성되기까지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300여 명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고귀한 결과물이 탄생된다



“To Build the best Piano Possible”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피아노를 만들어라.

_ 스타인웨이의 창업자, Henry E. Steinway (1797~1871)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피아노를 만들라”는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스타인웨이가 확립한 기본 구조는 전 세계 피아노 구조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스타인웨이는 128개 정도의 특허 발명품과 1,000개 정도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중 현의 장력을 팽팽하게 만들도록 한 강철판은 역사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힌다. 또한 피아노 현을 비스듬히 교차시켜 매어 놓은 구조는 베이스 쪽의 현을 좀 더 길게 만들어, 보다 풍부한 음량과 좋은 울림의 음향판을 가능하게 했다. 이 두 가지 발명품으로 모든 현대 피아노의 지침이 되는 그 유명한 ‘스타인웨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 엄격한 가이드 라인의 설치 외에도 스타인웨이의 품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랫동안 마이스터들에게 계승되어 오고 있는 장인정신의 전통이다. 고급 목재로부터 진정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탄생하기까지는 만 1년이 걸린다. 설계 단계부터 소재 선택, 부품 제작, 구조, 조립, 마무리, 점검까지의 전 공정에서 깊은 지혜와 날카로운 감성, 숙달된 손재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총 300여 명의 손을 거치며, 스타인웨이의 역사 속 오직 6명에 불과한 마스터 디렉터 역시 스타인웨이의 위대함을 상징한다. 이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회사를 이끌어 오며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있다. 12,000개 이상의 부품과 수많은 특허로 구성된 독자적이고도 정밀한 기술과 긴 시간, 많은 이들의 장인정신을 통해 탄생하는 스타일웨이는 완성과 동시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

명작은 예술로 남는다

블렌디드 위스키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일관성 있는 맛과 향을 대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장인정신이 담긴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로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은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탄생했다. 2010년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에 이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지난 11월에 선보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에 이르기까지 총 4가지의 스페셜 에디션들을 매년 한정적으로 출시해 왔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은 발렌타인 17 특유의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은 그대로 지니면서도 각 지역과 증류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몰트의 특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컬러와 맛, 향, 여운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시리즈는 발렌타인 애호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과 독특한 카테일 레시피를 통해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히 여성에게 그 매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
2010년부터 매년 한정 출시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01.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
02.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03.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04.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스타인웨이는 '함부르크 공장 설립 125주년 기념 한정 모델', '칼 라거펠트 디자인 한정 모델', '존 레논 탄생 7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등 컬렉터를 위한 기념비적인 모델은 물론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손길을 거친 시그니처 에디션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아름다운 보석의 광채'의 이미지를 그대로 피아노에 표현한 '크라운 주얼(Crown Jewels)' 시리즈. 스타인웨이의 보석으로 일컬어지는 이 피아노 시리즈는 루비, 사파이어, 오팔, 에메랄드, 황옥, 말라카이트 등 영원한 빛과 권력을 드러내는 왕관을 장식해 온 여러 가지 보석의 이미지를 컨셉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연의 기묘한 조화를 드러내는 획기적이고 아름다운 명목을 세계 곳곳에서 까다롭게 골라내어야 하며, 150년 남짓 되는 스타인웨이의 피아노 제조의 기교를 모아 만들어진다. 이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악기임과 동시에 악기를 넘어서는 매력을 가진 매혹의 아름다움, 하나의 예술품이다.

10년 전과 오늘 마시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맛과 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예술적인 블렌딩. 이 위대함은 단 한 잔을 음미해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다.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인웨이 역시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순간, '유례 없는 고유의 사운드'가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발렌타인과 스타인웨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깊은 감명을 남길 수 있는 근원이며, 이 두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이다. 🍷

05



06

>>

05, 06. 샤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직접 디자인한 1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07. 지난해 스타인웨이 160주년을 기념하며 가구 예술가 다코다 잭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아라베스크> 에디션
08. 여러 가지 보석의 이미지를 특별하게 담은 크라운 주얼(Crown Jewels) 시리즈 중 <루비> 에디션



07

08



Lifestyle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만의 신념을 믿고 진정성 있게 그저 한길을 걸어갈 뿐이다.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발렌타인과 골프. 이 둘의 묘한 조화도 바로 이 <STAY TRUE>를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Share The Value, 2013 BMW Masters

발렌타인과 골프의 귀중한 가치를 공유하다 2013 BMW 마스터스

‘2013 BMW 마스터스’가 지난 10월 24일부터 나흘간 상하이 레이크 말라렌 골프 클럽에서 개최됐다. 발렌타인은 이 골프 토너먼트의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대회를 공식 후원하면서, 많은 골프 팬들에게 발렌타인과 골프의 만남이 전하는 의미 있는 가치를 선물했다.

1960년 영국의 명문 골프 클럽 웬트워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토너먼트 대회를 처음 후원한 이후, 발렌타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렌타인과 골프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발렌타인이 주관하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여섯 번째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을 비롯, 2013 아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과 2013 BMW 마스터스를 공식 후원했다.

BMW 마스터스는 유러피언 투어 파이널 시리즈의 첫 번째 경기이자 총 상금만 70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골프 토너먼트 중의 하나다. 그에 맞게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이번 대회를 빛냈다. 올해 치러진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 브렛 럼포드는 물론 역대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로리 맥길로이, 리 웨스트우드,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이안 풀터 등 유러피언 투어 톱랭커들의 합류로 경쟁이 치열했다. 2013 BMW 마스터스에서는 스페인의 곤잘로 페르난데즈 카스타뇨가 공동 2위인 통차이 자이디, 프란체스코 모리나리를 1타 차로 따돌리면서 총 11언더파의 성적으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우승을 차지한 그는 “오늘은 제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내 자신을 믿고 따랐던 것이 경기에 큰 영향으로 작용했고, 그래서인지 마치 고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며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많은 팬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곤잘로 페르난데즈 카스타뇨에게는 우승 상금과 함께 발렌타인 30이, 최저타를 기록한 리카르도 곤잘레스에게는 발렌타인 170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한편 발렌타인은 BMW 마스터스의 대회 기간 중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인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을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또 자신이 믿고 따르는 가치에 충실하면서 주변의 이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새 솔로건의 의미를 전파하며, 이에 대해 대회에 참가한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

01. 우승 직후 발렌타인 30을 부상으로 수여 받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02. 1타 차로 값진 우승 타이틀을 얻은 곤잘로 페르난데즈 카스타뇨

Special Interview with Star Players

BMW 마스터스에서 만난
세계적인 골퍼들

매 골프 경기마다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있어, 자신을 이 자리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발렌타인은 BMW 마스터스를 앞둔 세계적인 골퍼들을 만나, 본인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동기에 대해 물었다. 이에 리 웨스트우드는 가족(Family),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는 리듬(Rhythm), 파드리그 해링턴은 경쟁(Competition)으로 각각 정의 내렸다.



리 웨스트우드 (LEE WESTWOOD)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조부모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골프 클럽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후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골프 클럽을 꺼내어 게임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 골프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이전까지는 골프에 대한 경험 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날 함께 골프를 시작한 셈이죠. 누군가는 골프를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러한 골프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골프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언급했는데, 골프가 본인을 힘들게 하는 부분 혹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다면_

저는 모든 골프 경기에 임할 때 제 자신과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에 있어서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모든 샷이 완벽하게 구사되는 최고의 날은 물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최악의 날에도 배울 점은 다 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절대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없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이제까지 저는 투지 넘치게 저만의 골프 스타일을 즐기며, 모든 것을 골프에 바쳤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만일 더 이상 골프라는 스포츠를 스스로 즐기지 못한다면, 아마 그때가 골프를 그만두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_

스포츠든 인생이든 모든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심어 주신 많은 요소들과 스스로 발전시켜 온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금의 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Miguel Angel JIMÉNEZ)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저는 가족을 돕기 위해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7형제 중 5남으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캐디 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코스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대의 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골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는지_

젊은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도 저는 골프를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도 49세의 나이로 여전히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골프를 사랑하고 연습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프로 선수로 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골프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라는 운동 자체를 좋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이 더해져야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_

골프 클럽에서 보시는 제 모습이 바로 저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여전히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경쟁을 즐기는 모습이죠. 저는 골프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골프이며,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경기장 안팎에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매일 4~5시간 동안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며 그 자체가 바로 인생입니다.

수 년간의 경험을 거쳐 오늘날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_

제가 하고 싶어하는 골프를 하면서 골프가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골프를 위해 바쳤고, 골프는 저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려 주었구요. 제가 골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골프가 제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행복합니다.



파드리그 해링턴 (Padraig HARRINGTON)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_

어릴 때부터 골프를 접했습니다. 경찰관이셨던 아버지께서 당시 12명의 경찰 동료들과 함께 골프 코스를 건설하셨습니다. 1970년대 당시 경찰관의 신분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골프의 입문조차도 매우 어려웠던 때라 직접 자신들을 위한 골프장 건설에 앞장서신 것이었습니다. 집과 15분 거리에 위치한 골프 클럽은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 놀이터였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_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의 국제 홍보대사직을 맡고 있으며, 골프 투어에 참가할 때는 골프 클리닉을 통해 선수들과 코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골프에 대한 놀라운 의욕과 열정을 가진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 저 역시도 기쁜 마음이 들고, 스페셜 올림픽 골프 경기에 임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큰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선수의 입장에서서는 성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늘 골프라는 게임을 즐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_

골프는 자신과 싸우는, 또 늘 끊임없는 고민을 요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생각을 다스려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신경을 기해야 합니다. 때때로 나쁜 샷이 나왔다고 화를 내서도 안되고 원치 않는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도 위기감을 갖지 말아야 하죠.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고 집중하며 결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년 후, 골프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_

제가 올바른 에티켓과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는 인식을 주고 싶습니다. 시합에 임할 때는 매우 경쟁적인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전 늘 경기의 룰과 규칙을 중히 여기고 있으며 프로 선수로서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한 손으로 볼을 치거나, 퍼터의 후면을 사용하거나 클럽을 내던져 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늘 피치 마크를 열심히 수리합니다. 그저 단순히 피치 마크를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필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작은 행동으로 보여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

Ballantine's KPGA Awards 2013

프로 골퍼들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
발렌타인 2013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

2013년 남자 프로골프 시즌을 총결산하는 '발렌타인 2013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위상을 높인 프로 선수들과 미래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리를 빛냈으며, 현장에서는 서로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따뜻한 광경이 펼쳐졌다.

'다시 뛰는 KPGA'라는 슬로건처럼 모든 선수와 관계자들이 하나된 열정으로 달려 온 코리아 투어를 기념하기 위해 '발렌타인 2013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한국 골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이 행사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선수들의 올 시즌 성적을 '발렌타인 포인트'로 취합하여 가장 많은 포인트가 누적된 선수에게 '발렌타인 대상'을 수여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발렌타인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을 메인 테마로, 뮤지컬과 영상을 통해 선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낸 드라마틱한 시상식 연출이 눈길을 끌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진정성을 추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선수들의 꿈, 야망, 열정, 신념, 재능을 엿볼 수 있었던 순간으로 객석의 감동을 자아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독특한 시상식을 통해 선수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골프 팬들에게 선사한 자리였다.

올해의 발렌타인 대상은 국내와 일본 투어를 종횡무진하며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준 류현우(32)가 차지했다. 류현우 선수는 4년간 자신의 곁을 성실히 지켜준 캐디인 처남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프로골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또한 CJ인비테이셔널과 한국오픈에서 연승을 거둔 강성훈(26·신한금융그룹)이 발렌타인 상금왕에 올랐고, 올해 PGA 투어 바이런 넬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쥔 배상문(27·캐러웨이)이 해외특별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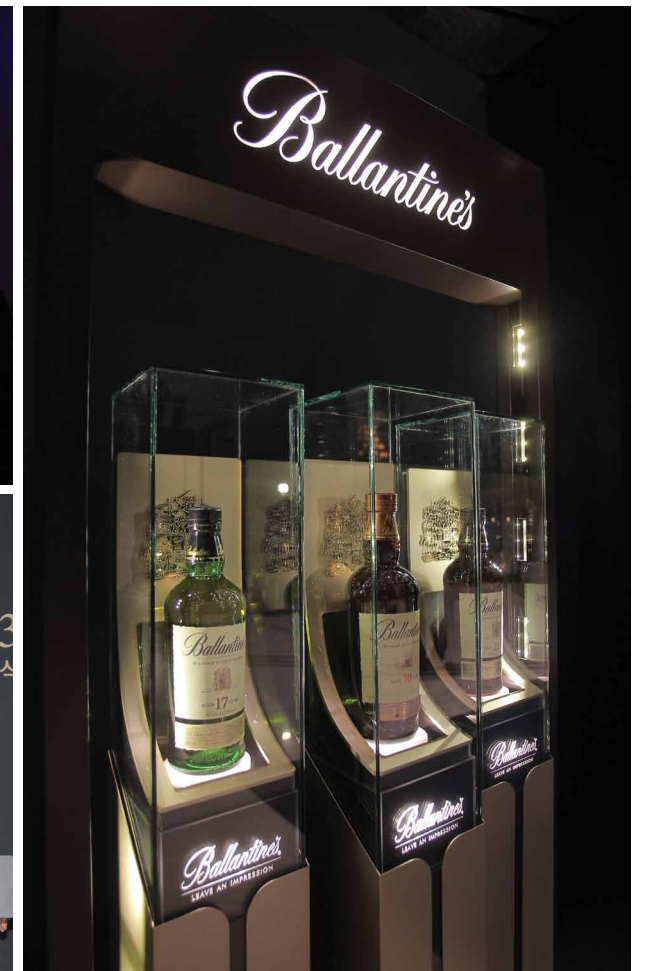
올 한 해 가장 많은 감동을 선사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LEAVE AN IMPRESSION'상은 올해 어렵게 투어에 복귀해 동춘선수권에서 우승을 일궈낸 김형태가 차지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퍼故연덕춘翁을 기리는 의미이자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덕춘상은 김형성(33·현대하이스코)에게, 신인상인 명출상은 송영환(22·핑골프)에게 돌아갔다. 최호성(40)은 기자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올해의 베스트 샷상을, 김태훈(28)은 올해 좋은 성적과 함께 장타상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 축하 화환을 쌀로 대신하는 뜻깊은 이벤트가 올해도 이어졌으며, KPGA 코리아 투어 선수회의 이인우(41) 대표가 쌀 화환을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또 류현우를 비롯한 한국프로골프 선수들이 서울역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올 한 해 골프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시상식 이후에도 그 훈훈한 감동을 이었다. [B]



>>
시상식에 앞서 축하를 전하고 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



다시 뛰는 KPGA,
그 뜻깊은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다



Column by Ballantine's Influencer

MFS 골프 대표이사 / 체육학 박사
전재홍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선택,
퍼터의 선택 요령

퍼팅의 순간은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단 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퍼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스스로의 퍼팅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퍼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골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연습장 또는 필드에서 보내며 실력을 연마해 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한 라운드 전체를 생각할 때 퍼터의 중요성에 대해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필자는 묻고 싶다. 보통 파72인 골프 코스에서 18홀을 라운드하는 동안, 우리는 평균 36번 이상 퍼터를 사용하게 된다. 비록 퍼터가 가장 작은 한 개의 클럽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븐 파 스코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임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우선 퍼터의 종류는 헤드의 모양에 따라 블레이드(Blade/일자형) 타입과 맬릿(Mallet/반달형)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보다 정교한 퍼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 이론인 '관성모멘트(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를 나타낸 것)'를 적용시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시킨 퍼터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블레이드 타입의 퍼터는 한 손가락으로 클럽 전체의 수평 균형을 잡을 때, 헤드 페이스의 토우 부분이 대략 45° 정도 돌아간 상태에서 균형이 잡히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돌아가 거의 수직에 근접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토우 밸런스(Toe-balance) 퍼터라고 하며, 대부분의 블레이드 퍼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타입의 퍼터는 상대적으로 토우(Toe) 쪽보다는 힐(Heel)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어서 힐 부분을 중심으로 가벼운 밸런스의 토우 쪽이 쉽게 회전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퍼터는 일반적으로 스트로크 시 헤드가 만들어 내는 궤적의 호가 급격한 골퍼에게 적당하며, 경사면이나 보다 정교한 퍼팅이 요구될 때 다양한 퍼팅 스트로크를 구사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맬릿 타입의 퍼터는 한 손가락으로 클럽 전체의 수평 균형을 잡을 때 헤드 페이스의 토우 쪽과 힐 쪽의 무게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페이스가 하늘을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퍼터를 밸런스(balanced) 퍼터라고 하며 대부분의 맬릿 퍼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타입의 퍼터는 스트로크 시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므로 헤드가 만드는 호를 일직선에 가깝게 퍼팅하는 골퍼에게 적합하다. 즉 퍼팅 스트로크 방향으로 틀어짐 없이 공을 보낼 수는 있으나, 경사면에서나 정교한 퍼팅 스트로크 시 단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인 퍼터 선택 요령, 퍼팅에 필요한 요소들을 필자가 장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축적해 온 객관적 데이터 및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퍼터 클럽의 선택 요령에는 퍼터의 전체 무게, 밸런스, 라이 컨디션 등 다양한 기

준이 있겠지만 그중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그림의 선택 2)헤드 디자인의 선택 3)소프트 배열의 선택,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단 그림을 선택할 때 일반 그림은 임팩트 전후에 헤드의 회전(Rotation)이 일률적인, 즉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연한 동작으로 회전하는 골퍼에게 적합하다. 또한 볼이 홀컵에는 안 들어가지만 비교적 일률적인 방향이 만들어지는 골퍼와 퍼터의 감을 중시하는 골퍼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굵고 무거운 그림은 어떤 골퍼가 선택해야 할까? 우선 퍼터의 임팩트 전후에 헤드의 회전이 많은 골퍼에게 적절한데, 이 현상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골퍼에게서 흔히 발생된다. 두 번째로는 퍼터 헤드의 회전에 일관성이 없고 퍼팅할 때마다 볼의 방향의 차이가 큰 골퍼에게 알맞다. 또 퍼팅 동작이 부드럽지 못하며 스트로크가 일정한 가속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덜컥거리는 골퍼나 뜻하지 않은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골퍼에게도 적합하다.

다음으로 헤드의 디자인을 선택할 때, 밸런스 퍼터나 맬릿 퍼터는 퍼터 진행 궤적의 호가 작음, 또 임팩트 전후에 헤드의 회전이 적은 골퍼에게 알맞다. 퍼터 진행 시 헤드가 쉽게 열리는 골퍼에게도 적합하다. 블레이드 퍼터, 즉 일자 퍼터는 맬릿 퍼터와는 반대로 퍼터 진행 궤적의 호가 큰 골퍼 혹은 퍼터 진행 시 헤드가 쉽게 닫히는 골퍼에게 적절하다. 소프트 배열의 선택 방법은 오프셋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오프셋이 있는 퍼터의 경우는 항상 손이 공보다 앞에 있도록 유지해 주고, 공을 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로 보는 눈이 오른쪽(우시)일 때와 한 쪽으로 치우치는 조준을 할 때 유리하다.

위의 세 가지 퍼터 선택 요령을 잘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오로지 감에 의존해 오던 퍼터 선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퍼터 선택 이후의 트레이닝 플랜(Training plan)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흔히들 '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한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 퍼팅 시 클럽의 가속을 측정해 보기도 하고, 일정한 거리를 얻기 위해 템포를 체크하기도 한다. 하지만 퍼팅 시 모든 조건을 무시한 상태에서도 골퍼가 볼을 임팩트하는 시점에 퍼터 헤드 페이스 면이 홀 컵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볼을 터치한다면, 40야드 이내에 있는 홀 컵에 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75%에 달한다. 결국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퍼터의 올바른 선택이며, 그 선택은 클럽 피팅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_ 전재홍 (jjh@mfgolf.com)



Column for Golfers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사업국장
박호윤KPGA와 페르노리카 코리아,
그 의미 있는 동행

남자 골프계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든든한 후원과

함께 대한민국 골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PRK).

이 둘이 만들어 낸 변화의 원동력은

단연 골프를 향한 변함없는 열정이다.



'다시 뛰는 KPGA', 'Dynamic Korean Tour',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2013년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왜 느닷없이 다시 뛰나요?', '그간에는 다이내믹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 만한 분은 알고 있듯이, KPGA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심각한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임 박삼구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물러난 이후, 협회는 후임 회장을 뽑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분오열되어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기조차 거북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던 KPGA는 2012년 10월, 현재의 황성하 회장이 제16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위와 같은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프로암 감사의 카드 증정', '우승자와 함께하는 해피 라운딩', '라운드별 스타 사인회' 또한 시즌 내내 진행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다소 건방져 보이기만 했던 남자 프로들은 프로암 경기 중 연습은 포기한 채 손님들 레슨에 전념했고 코리안 투어 우승자는 팬들과 함께 무료 라운딩을 통해 진심 어린 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대기업 오너는 협회장에게 직접 찾아와 프로들의 진지한 모습에 감사를 전했고 또 다른 스폰서의 CEO는 프로암이 끝난 뒤 "선수들이 공을 안 쳐요. 손님들에게 레슨 해주느라고—"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협회 홍보와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도 이와 관련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남자 프로들이 많이 변했다"는 내용입니다. 남자 프로들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변화지요.

KPGA가 이처럼 2013년 시즌을 통해 성공적인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자 골프계 전반에 깔려 있는 위기감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골탈태의 자세로 모두가 힘을 모았던 것이죠. 여기서 협회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진심 어린 지원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페르노리카 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개최해 국내 골프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 톱랭커를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팬들에게 최고 수준의 샷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일이겠죠. 그렇게 6년간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대한민국 골프의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대회 개최 외에도 협회와의 악정을 통해 '발렌타인 대상 포인트', '발렌타인 상금왕'이란 타이틀로 코리안 투어 활성화에 기여했고, 또 연말에는 적지 않은 투자를 통해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열어 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발렌타인 대상과 발렌타인 상금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침으로써 기량 향상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까지 6차례 열렸던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아쉽게도 올해부터 더 이상 개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페르노리카 그룹은 한국 골프 산업과 골퍼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는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간의 여섯 차례 대회만으로도 페르노리카 그룹이 대한민국의 골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앞으로도 골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뜨거운 열정을 표출함은 물론 코리안 투어와의 인연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여전히 마음은 든든합니다. 2014년 시즌부터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코리안 투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그에 속한 6천 여 회원들을 대신해 페르노리카 그룹과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한 말씀 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_ 박호윤(phy2006@kpqt.com)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Innovation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200여 년간 변치 않는 일관성, 그리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포용력.
이 둘을 동시에 갖춘 발렌타인 17이 꺼내 들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스코틀랜드의 증류소에, 미지의 자연에,
색다른 스타일에 이어 이번엔 컬러다.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Editions

스코틀랜드의 4가지 컬러를 담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발렌타인 17이 선사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핵심은 스코틀랜드의 4개 증류소 몰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그니처 몰트의 특성을 강조하여 하나씩 선보이고 있는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시리즈의 네 번째 에디션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감미로운 여운과 함께.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하다 발렌타인 17 오리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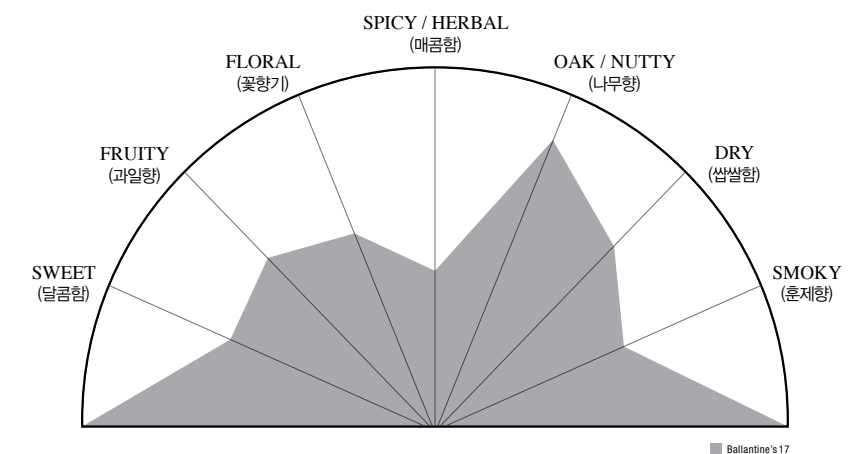
색다른 즐거움을 이어가는 '아트 오브 블렌딩'

스코틀랜드 4개 지역에서 엄선한 40여 가지의 싱글 몰트와 그레이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탄생하는 발렌타인 17. 이 완벽한 블렌딩 가운데서도 두드러지는 4가지 시그니처 몰트는 다른 어떤 브랜드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발렌타인 17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발렌타인은 이 역할을 증명하고 발렌타인 17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각 시그니처 몰트의 맛과 향을 반영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2010년부터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4가지 시그니처 몰트가 완성하는 '퍼펙트 밸런스'

이 시리즈는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스코틀랜드 4개 증류소의 몰트 각각의 개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스키 블렌딩의 묘미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에 강조된 글렌버기 몰트는 감미로운 과일향과 풍부한 달콤함으로 발렌타인 17 블렌딩의 중심을 이룬다. 두 번째 에디션의 스카파 몰트는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원으로 발렌타인 17의 첫 느낌인 '부드러움'을 여는 역할을 하며, 밀튼더프 몰트는 따뜻한 느낌과 함께 발렌타인 17 블렌드의 바탕을 이루는 베이스로 세 번째 에디션에서 부각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네 번째 에디션에서는 부드럽고 긴 여운을 남기는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피니시를 담당하는 글렌토크스 몰트가 강조됐다.

Tasting Wheel



Tasting Notes

Color 영롱한 황금빛 앰버 컬러
Nose 우드와 바닐라 느낌이 균형 잡힌 깊고 우아한 향
Body 크리미하고 매혹적인 풀 바디
Taste 오크와 피트의 스모키한 향이 묻어나는 허니의 달콤한 맛
Finish 가벼운 스모키함과 바닐라의 긴 여운

1st edition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Glenburgie 200th Anniversary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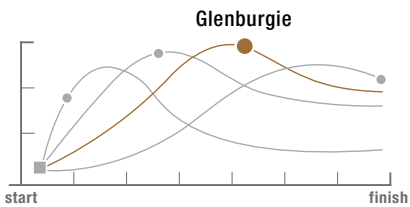


200년 증류소의 역사를 담아내다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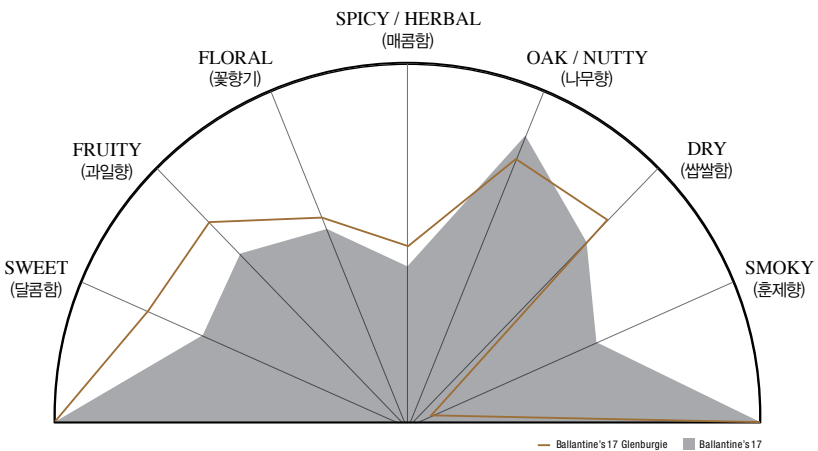
발렌타인 17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첫 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 글렌버기는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1810년에 첫 문을 연 글렌버기 증류소는 200년 동안 변치 않는 발렌타인 17의 우아하고 달콤한 맛의 초석이 되는 곳으로, 전통적인 정신이 담긴 글렌버기만의 블렌딩 스타일을 지금까지도 몰트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감미로운 과일향과 풍부한 달콤함이 특징인 글렌버기 몰트 원액을 비중 있게 블렌딩한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에디션은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오렌지 맛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오랜 여운을 남긴다.

발렌타인 17의 중심, 글렌버기 몰트

애플과 허니의 달콤함으로 발렌타인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는 글렌버기 몰트는 발렌타인 17 블렌딩의 심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에 반영됐다.



Tasting Wheel



Tasting Notes

- Color 황금빛 호박색
- Nose 우아하게 균형잡힌 풍부한 향
- Body 크리미하고 달콤한 부드러움
- Taste 복합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향긋한 맛
- Finish 여운이 오래 남는 라이트한 오크 향

“ ”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한 스페셜 블렌드,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은 과일향의 달콤함을 특색으로 합니다. 글렌버기 증류소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 한 병에 표현되어 있으며, 한정수량만을 생산합니다.

— 마스터 블렌더 샌디 하슬롭



Glenburgie
200th Anniversary Edition

2nd edition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Scapa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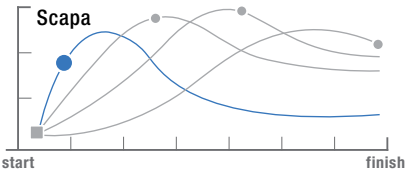


순수한 스코틀랜드의 자연을 머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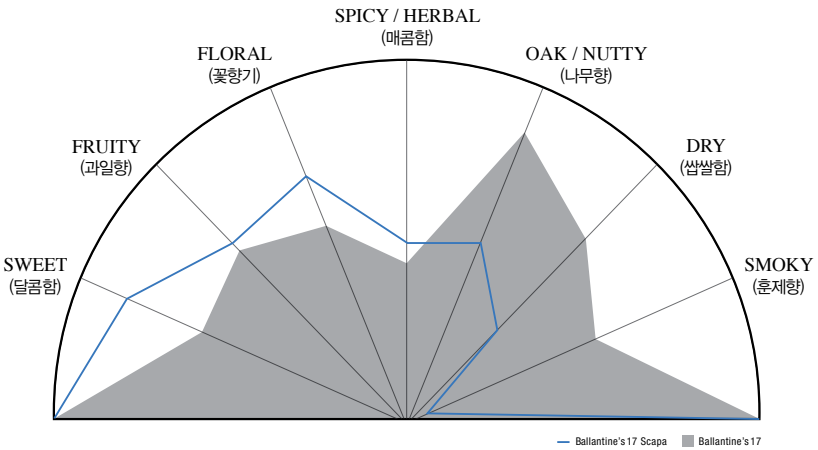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하이랜드(Highlands) 안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카파 지역.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이 미지의 자연이 선사하는 풍부한 풍미를 머금고 있다. 특히 이국적이고 드넓은 스카파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이 두 번째 에디션은 발렌타인 본연의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에 풍부한 과일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곳에 위치한 스카파 증류소는 1885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도 소량의 원액만을 엄선하고, 피트 없이 피트의 맛을 내게 하는 마법의 증류법과 전통적인 모양 그대로의 포트 스틸을 유지해 오고 있어,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에 신비한 아름다움을 한층 더한다.

발렌타인 17의 첫 느낌, 스카파 몰트

바닐라의 부드러움과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스카파 몰트는 발렌타인 17의 첫 느낌인 '부드러움'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에서 그 특징이 더욱 강조됐다.



Tasting Wheel



Tasting Notes

- Color 밝은 황금색
- Nose 바닐라 크림, 꽃향기, 희미한 바다 향
- Body 순수함, 고급스러운 부드러움
- Taste 매끄러움, 바닐라의 단맛
- Finish 신선한 바다 향의 여운

“ ”

미지의 자연, 스카파 지역에서
독특하면서도 숙련된 발렌타인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위스키 소비자들에게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 마스터 블렌더 샌디 하슬롭

Scapa Edition



3rd edition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Miltonduff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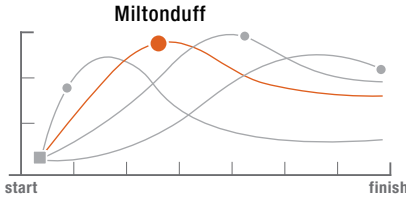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을 입다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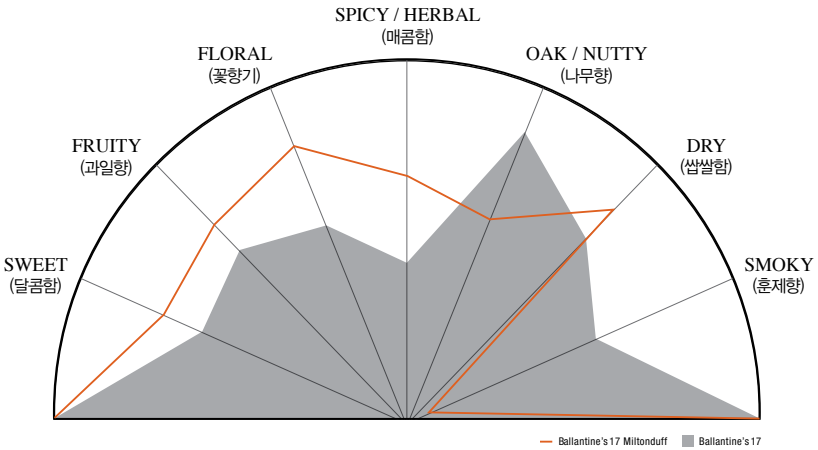
발렌타인 17 밀튼더프는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 밀크 초콜릿의 달콤함에 계피의 스파이시한 풍미가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밀튼더프 고유의 럭셔리한 스타일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 번째 에디션이다. 이 에디션에 반영된 밀튼더프 몰트는 발렌타인 17이 지닌 우아하고 따뜻한 느낌의 구간을 이루고 있으며, 탁월한 풍미와 크리미하고 따스한 느낌이 특징이다. 밀튼더프 증류소는 스페이사이드 지역 안에서도 최고 품질의 황금 보리가 자라는 '스코틀랜드의 정원'에 자리잡고 있다. 팔 부분(Lyne arm)이 긴 독특한 형태의 증류기는 이 천혜의 자연에 아로마틱한 풍미를 더하며 플로럴한 향과 짙은 바디감을 부여한다.

발렌타인 17의 따뜻함, 밀튼더프 몰트

오렌지의 상큼함과 꽃향기, 시나몬의 스파이시함을 지닌 발렌타인의 핵, 밀튼더프 몰트는 발렌타인 17이 가진 따뜻함의 구간이 되고 있으며, 그 특성이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에 그대로 반영됐다.



Tasting Wheel



Tasting Notes

- Color 영롱한 오렌지 골드
- Nose 오렌지 주스의 과일 향과 아몬드 사탕의 달콤한 향
- Body 부드럽고 고소함이 어우러진 바디감
- Taste 꽃향기와 따뜻한 밀크 초콜릿의 달콤함에서 계피 느낌의 스파이시함까지
- Finish 매우 길고 따뜻하며 달콤함

“ ”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에는 풍부한 꽃향기, 스파이시한 아로마 향과 함께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밀튼더프 몰트만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발렌타인 17 블렌드의 기본을 이루며 다른 몰트와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_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Miltonduff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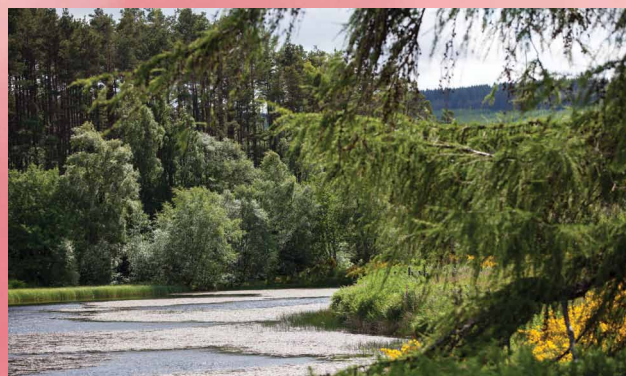
UNDISCOVERED COLOUR OF SCOTLAND

발렌타인 17 새로운 컬러로 말하다

또 다른 발렌타인 17의 발견을 위해 시작된 여행.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순수한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발렌타인 17 고유의 스타일에 매력적인
 라즈베리 컬러가 더해진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이
 마침내 그 향기로운 네 번째 여정에 나선다.

>>

황금의 삼각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사이드' 지역에서
 따뜻함을 담은 긴 여운의 글렌토커스 몰트가 만들어진다



4th edition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Glentauchers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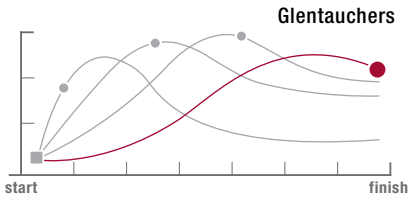


깊은 여운을 담은 컬러에 빠지다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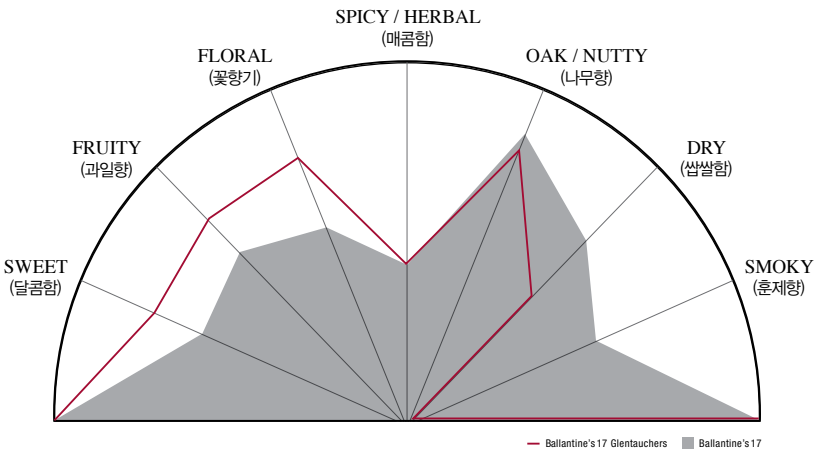
마침내 공개된 발렌타인 17의 네 번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컬러부터 남다르다. 라즈베리를 떠올리게 하는 버건디 컬러의 독특한 색채 조합은 기존 리미티드 에디션의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블렌드와 차별화되는 글렌토커스 에디션만의 개성을 보여준다. 글렌토커스 증류소는 1898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전통적 증류 방식을 지켜온 스코틀랜드의 몇 안 되는 증류소 중 하나다. 이러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글렌토커스 몰트는 은은한 시트러스의 풍미를 가지며, 여성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라즈베리와 견과류 향, 따뜻함을 담은 긴 여운이 그 특징이다.

발렌타인 17의 긴 여운, 글렌토커스 몰트

부드러운 라즈베리의 풍미와 견과류의 고소함으로 끌어내는 깊고 감미로운 여운이 특징인 글렌토커스 몰트는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피니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에서 특히 강조됐다.



Tasting Wheel



Tasting Notes

- Color 붉은 황금빛
- Nose 부드러운 딸기 향과 꽃향기
- Body 시원하면서 입안을 꽉 조여주는 세련된 느낌
- Taste 입안에 가득한 단 향, 부드러운 라즈베리
- Finish 아름답게 느껴지는 긴 여운



“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발렌타인 17 블렌드 안에서도 가장 미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스타일이 반영된 이번 에디션을 통해 발렌타인 17의 깊고 감미로운 여운을 끌어내는 글렌토커스 몰트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_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Glentauchers
Edition

INNOVATIVE WAY OF BALLANTINE'S

위스키 최초의 팝업 스토어 발렌타인 팝업바

기존의 발렌타인 고객은 물론 다양한 층의 소비자들이 발렌타인 위스키에 보다 친근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발렌타인 팝업바가 지난 11월 18일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첫선을 보였다. 한 달간 이태원에 위치한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 그랑씨엘에서 운영된 발렌타인 팝업바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색다른 콘텐츠를 제공함은 물론 위스키를 즐기는 트렌디한 문화를 이끄는 공간으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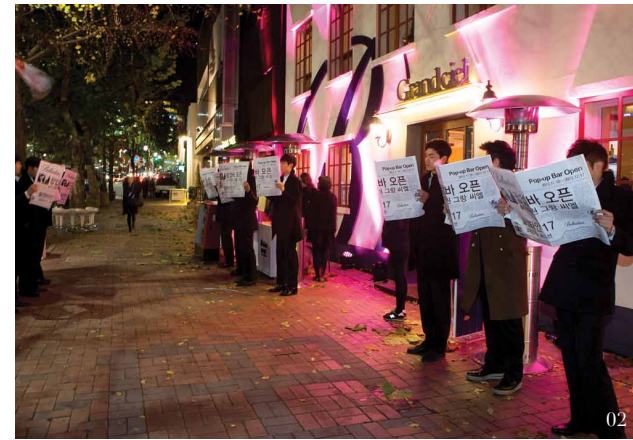


Ballantine's Pop-up Bar Opening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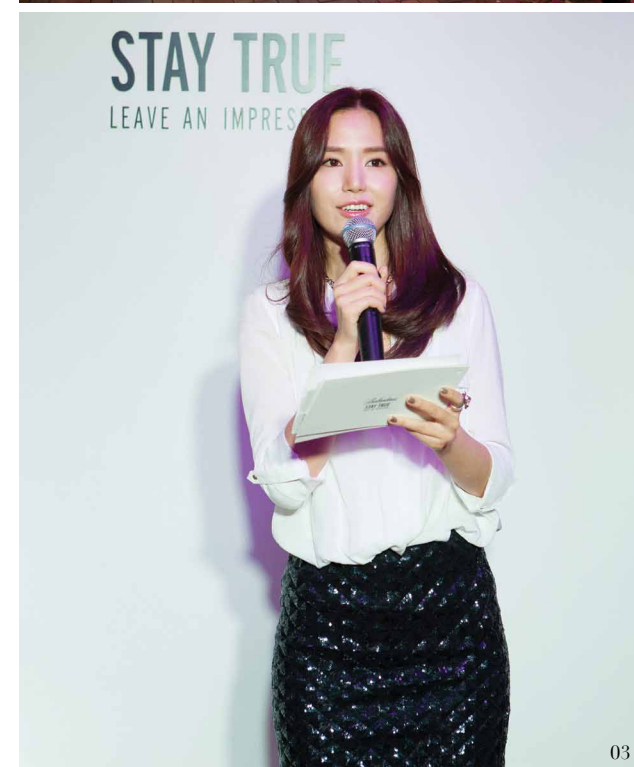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수놓은 축하의 밤
발렌타인 팝업바 오픈닝 파티
[2013.11.18]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팝업바 오픈에 앞서 깜짝 이벤트를 개최했다. 팝업바 오픈을 알리는 거리 퍼포먼스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정장을 차려 입은 신사들이 일제히 발렌타인 팝업바 오픈 소식 이 실린 신문을 펼쳐 보고 있는 이색적인 풍경은 발렌타인 팝업바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지나가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밤이 깊어질 즈음, 배우 공현주의 사회로 시작된 발렌타인 팝업바 오픈닝 파티에는 수많은 VIP, 셀러브리티,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발렌타인 17만콤이나 조화로운 하모니를 선사한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무대가 끝나고,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의 런칭을 알리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팝업바 현장을 찾은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는 무대에 올라 기념 인사를 건넸고,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의 런칭과 발렌타인 팝업바의 오픈을 축하하는 의미로 참석한 모두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02



03



01

>>

- 01, 02. 이태원 일대에서 팝업바 오픈을 알리는 거리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03. 팝업바 오픈닝 파티 사회를 맡은 배우 공현주
04.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 팝업바를 찾아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04



- >>
- 01. 조화로운 하모니를 들려준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 02. 오프닝 파티를 빛내준 가수 김조한
 - 03.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 04. 05.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와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만나다

발렌타인 팝업바 오픈을 기대해 왔던 많은 이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의 공개였다. 이 같은 공개는 올해로 어느새 4년째다. 발렌타인 17만의 완벽한 균형감을 완성하는 시그니처 몰트 각각의 상징성을 기리기 위해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2010년부터 매년 선보이고 있는 것.

올해는 발렌타인 17의 피니시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길고 감미로운 여운의 주인공,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이 팝업바에서 첫 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등장과 함께 발렌타인 17과 4가지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들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다섯 가지 컬러의 향연으로 모두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1, 2층으로 구성된 발렌타인 팝업바는 곳곳이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는 컨셉룸으로 꾸며졌고, 그 속에서 차별화된 발렌타인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로맨틱한 하모니에 더해지는 발렌타인 무드

오프닝 파티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갈 즈음, 감성을 가득 실은 선율이 실내 가득 울려 퍼졌다. 가수 김조한의 무대가 시작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일순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노래 중간중간 자유로운 대담이 이어지는 미니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김조한의 무대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조한은 "최소 17년 이상 숙성된 수십 가지의 원액이 만나 비로소 발렌타인 17이 탄생하는 것처럼, 지금의 저 역시 17년이 넘는 긴 세월과 주변의 수많은 분들로 인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며 "평소에도 저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 발렌타인을 즐기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위스키 중 하나"라고 본인과 발렌타인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곁들였다. 컷가를 맴도는 김조한 특유의 보이스는 무대가 끝나고도 오랫동안 팝업바를 여운으로 가득 메웠고, 발렌타인의 낭만적인 무드와 어우러져 모두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다.



01

- >>
- 01. 발렌타인 17 시리즈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었다
 - 02. 매주 금요일에는 팝업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을 초콜릿 샷전에 담아 제공했다
 - 03. 04. 그랑씨엘 이승희 셰프가 직접 개발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메뉴
 - 05. 한 달간 발렌타인 팝업바에서는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와 이벤트를 선보였다



01



02



02



03



04

매 순간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발렌타인 팝업바 그 한 달간의 스케치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를 런칭하는 것과 동시에 '발렌타인 17, 새로운 컬러로 말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컬러를 통해 위스키와 소통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했다. 그런 면에 있어 발렌타인 팝업바는 발길이 닿는 모든 공간에서 발렌타인의 다양한 컬러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였다. 특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선보인 다양한 전문가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과 위스키를 즐기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오직 팝업바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했다.

발렌타인 팝업바의 어느 저녁, 메인 홀에서는 각기 컬러가 다른 다섯 잔의 아트 글라스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 특별한 5컬러 아트 글라스는 바로 유리 공예가 박성원 작가가 수작업으로 제작한 작품.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인 긴 여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독특한 글라스 디자인에는 각 에디션의 메인 컬러가 반영되어 있었다. 발렌타인 17을 비롯한 4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 글라스들에 차례로 담겼고, 그랑씨엘의 이승희 오너 셰프와 함께 개발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메뉴는 발렌타인의 풍미와 잘 어우러지며 오감을 일깨웠다. 2층에 위치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룸'에서는 발렌타인 앰버서더와 함께하는 위스키 클래스가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

- 01.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클래스가 진행됐다
- 02. 박성원 글라스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한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 03. 5컬러 아트 글라스와 함께 미니 멘토링 클래스를 경험한 외국인 커플
- 04. 조대연 바텐더가 직접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모습



03



04



05



Every Friday, Free Drink!

팝업바 오픈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와 6시, 발렌타인 팝업바 테라스에서는 ‘발렌타인 17 핫초코’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프리 칵테일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팝업바를 찾은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초콜릿으로 만든 샷잔에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를 담아 제공하기도 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소소한 이벤트들은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도 주목을 받으며, 발렌타인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Interview with Special Guest

발렌타인 팝업바를 찾은 특별 게스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santuarie e classica) 회원들과 오늘 함께 참석했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도 마시고 김조한 씨의 공연도 즐기면서 많은 추억을 남깁니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들은 향만으로도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시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의 라즈베리 향이 제게는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 프레이징팀 모터타임 서현보 이사

“평소에도 발렌타인을 좋아하는데 이번 팝업바에서 그동안 몰랐었던 발렌타인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여성분들의 취향에도 알맞아 주위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 발렌타인의 매력이라면 반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랄까요? 물론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발렌타인의 오랜 전통과 그 히스토리를 알고 마셨을 때 그 매력이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 애널리스트 이승현

“한자리에서 모든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맛보고 비교할 수 있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전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런칭 때 발렌타인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컨셉룸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추억 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작품을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발렌타인은 한 모금 머금었을 때 입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 끌어당기는 매력 때문에 제가 계속 발렌타인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발렌타인 17처럼, 오랜 시간을 걷다

가수 김조한

발렌타인 팝업바의 오프닝 파티 현장을 소울 가득한 R&B 선율로 가득 메워 준 가수 김조한을 만났다.

평소에도 발렌타인을 즐긴다는 그와 함께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담긴 음악 인생과 발렌타인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한민국 소울 음악의 선두 주자이자 'R&B 대디'라고 불리고 있는데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저희의 존재를 각인시킨 지가 햇수로 벌써 17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R&B는 모두에게 생소한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R&B 장르를 서서히 알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음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R&B 대디'라고 불러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로서는 무척 영광스러운 닉네임이죠.

17년 전과 비교해서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제 노래에 애착을 가져 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래도 17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차이가 있겠죠.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도 변화됐고요. 하지만 저는 올드한 것과 빈티지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올드'가 단지 오래된 것을 의미한다면, 올드한 것을 잘 가꾸고 관리해 준다면 '빈티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저 역시도 목소리를 잘 관리해서 죽을 때까지 좋은 노래를 들려 드리고 싶어요.

앞서 언급한 '빈티지'의 의미를 위스키의 연산에 비유한다면

아마 어떤 술은 이틀 혹은 나흘 안에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블렌디드 위스키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17이 17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거쳐 탄생되는 것처럼, 그 긴 세월에는 많은 정성과 노후가 깃들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렌타인 팝업바에서의 공연을 마쳤는데, 소감은

평소에도 발렌타인 위스키를 좋아해서 흔쾌히 오프닝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관객 분들의 호응도 좋아서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오늘 들려 준 5곡의 음악 중 발렌타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노래는

개인적으로는 〈이 밤의 끝을 잡고〉가 발렌타인 17의 분위기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발렌타인 17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제 노래 중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이 밤의 끝을 잡고〉를 앙코르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는지

평상시에 자주 마신다고 하면 저를 애주가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웃음), 발렌타인은 제가 선호하는 위스키 중의 하나입니다. 혼자 음악 작업을 할 때나 비 내리는 날 테이스팅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발렌타인 17 글렌토키스 얼그레이'라는 칵테일을 마셨는데, 홍차의 은은한 매력이 더해져 굉장히 맛있었어요.

발렌타인 17과 김조한,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되는지

오늘 제 공연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늘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생활의 흔적이 엿보이도록 말이죠. 5년, 10년 전에는 마음껏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현재는 제가 만들어 내는 소리, 들려 주고 싶은 감정들을 노래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에게 17년은 제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발렌타인 17이 소중한 시간을 거쳐 블렌딩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람과 위스키 모두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것, 그 자체 만으로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

01. 발렌타인 17 글렌토키스 칵테일을 마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02.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Special Concept Rooms For Ballantine's 17 Distillery Editions

저마다의 히스토리가 묻어나는 컨셉룸 발렌타인 팝업바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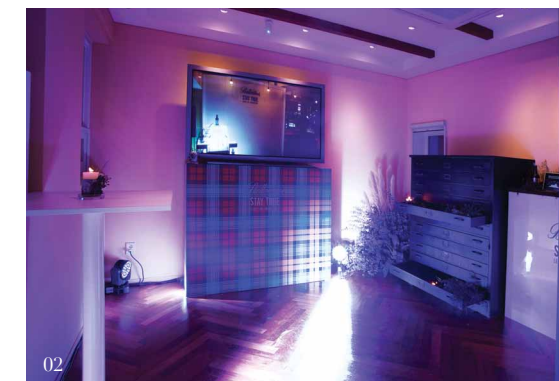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보다 내면에 숨어 있는 속성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런 면에서 발렌타인 컨셉룸은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내면의 이야기를 숨김 없이 담아낸 공간, 다시 말해 발렌타인의 특별한 에디션들을 오감으로 즐기며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st Room for GLENBURGIE

글렌버기 증류소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발렌타인 17 글렌버기룸

첫 번째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하듯 발렌타인 팝업바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룸. 2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일관된 발렌타인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글렌버기 증류소 만 큼이나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룸은 절제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글렌버기 룸은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에디션이 선사하는 과일 향의 달콤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테이스팅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곳에서 하객들은 글렌버기 증류소의 숭고한 역사와 상세한 히스토리를 들어가며 글렌버기 몰트 특유의 스타일을 발견해 가는 기쁨을 누렸다. 컨셉룸 곳곳에서 글렌버기 증류소가 위치한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의 자연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눈에 띄었다. 창 너머로 비치는 아름다운 야경과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에디션의 달콤한 풍미에 깊게 빠져들었는지 모두들 쉽사리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

01. 2010년 첫선을 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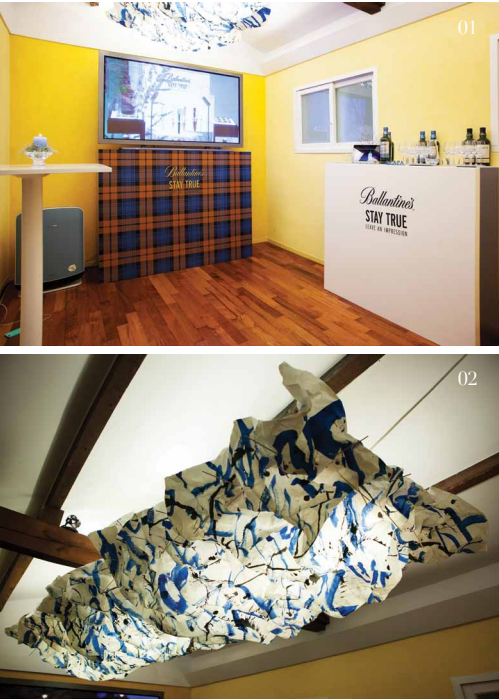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

02. 은은한 실내 조명이 더해진 실내 공간

03. 글렌버기 증류소가 위치한

스페이사이드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내부 인테리어



>>
01. 팝업바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발렌타인 17 스카파 룸
02.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와 조성옥 한지조명작가의 협업으로 완성된 조명 작품



2nd Room for SCAPA

스카파 해안의 신비로운 자연이 물씬 느껴지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룸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카파 지역처럼, 발렌타인 팝업바의 가장 안쪽에 자리잡았던 발렌타인 17 스카파 룸. 순수하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의 스카파 해안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컨셉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렌타인 17 스카파 룸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었다. 이 특별한 조형물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와 조성옥 한지조명작가의 공동 작품으로, 지난 2011년에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출시를 기념하며 만들어진 컨셉룸에서 이미 첫선을 보인 바 있다.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가 컨셉이었던 당시의 여러 컨셉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별의 공간'을 장식했던 소품이자, 한국의 미와 발렌타인의 예술적 블렌딩의 조화가 돋보였던 특별한 작품이다. 거기에 발렌타인 17 스카파의 부드러운 맛과 향이 배어 있는 아늑한 공간은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물하기에 충분했다.

3rd Room for MILTONDUFF

따스하고 풍부한 스코틀랜드의 정원을 담은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룸

발렌타인 팝업바의 테라스에 넓게 자리잡은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룸은 보다 밝고 경쾌한 느낌의 공간으로 여성들의 발길이 유독 잦았다. 디제잉 부스의 흥겨운 음악은 팝업바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많은 이들이 스탠딩 테이블 주위에 모여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벽면에 설치된 포토월 앞에서는 지인들과의 기념 사진 촬영이 이어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였던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룸은 오렌지 컬러를 메인으로 게피, 오렌지를 활용한 장식과 액자 등의 소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등 감각적인 면모를 뽐냈다. 또한 컨셉룸을 찾은 이들은 현장에 머무르던 발렌타인 앰버서더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점차 발렌타인 17 밀튼더프의 매력에 젖어 들었고, 앞서 맛본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01.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로 경쾌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02, 03. 아늑한 분위기에서 테이스팅할 수 있도록 꾸며진 실내



4th Room for
GLEN TAUCHERS

부드럽고도 긴 여운이 구석구석에 녹아 있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을 위한 특별한 공간은 컨셉룸 4곳 중 유일하게 팝업바 2층에 따로 자리했다. 클래식한 나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나타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룸은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에 버건디 컬러의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산뜻한 매력을 발산했다. 여성들의 취향을 고려해 향긋한 플라워 장식과 향초 등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였다. 컨셉룸 창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전경은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에 낭만적인 무드를 더했다. 한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룸은 한 달간 위스키 클래스가 진행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면서, 위스키 클래스를 찾은 많은 이들에게도 인상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또한 팝업바 오픈 기간 동안 다양한 발렌타인 위스키와 발렌타인 칵테일을 손쉽게 주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컨셉룸 안쪽에 발렌타인 바가 마련되기도 했다. 



>>

- 01. 발렌타인 팝업바 2층에 위치한 프라이빗한 공간
- 02.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룸 안쪽에 마련된 발렌타인 바
- 03.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과 함께 발렌타인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위스키 클래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
Enjoy Your Color of Ballantine's
색(色)다른 발렌타인을 접하다
발렌타인 오픈 바

발렌타인 위스키는 물론 발렌타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칵테일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발렌타인 바가 팝업바의 1층 테라스와 2층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룸에 각각 꾸며져 한 달간 다양한 고객들을 맞이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발렌타인의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어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발렌타인 바에서 이루어졌다.

BALLANTINE'S LINE-UP



Ballantine's 40

두 거장의 손끝에서 실현된
200여 년간의 열망

발렌타인 40년은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처드 폭스가 합작하여 탄생한 이 명작은 매년 단 100병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께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발렌타인 30년은 슈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중 단연 최고 제품이다. 수작업으로 직접 고른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한정된 수량으로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가 탄생한다.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가장 진귀한 원액과 3대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프레임에 가죽 느낌의 커버가 품격을 높인다.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발렌타인 21년은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반짝이는 황금색, 향기로운 꽃향기, 아로마틱한 풍미 등 요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급 위스키의 전형으로 칭송 받는 발렌타인 21년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다.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하는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 브랜드

발렌타인 17년은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이다.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BALLANTINE'S SPECIAL GIFT SET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기프트 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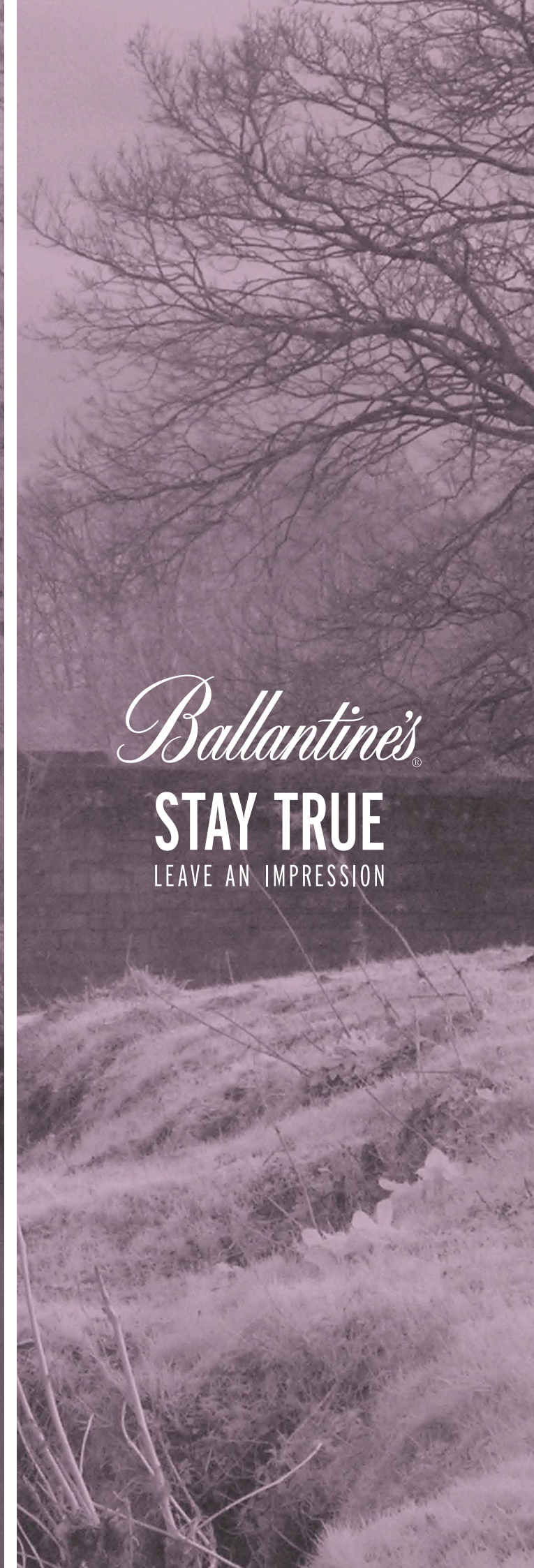
새로운 컬러로 오감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이 특별한 기프트 팩으로 한정 출시되었다. 지난 11월에 런칭한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발렌타인 17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네 번째 제품으로, 이번 기프트 팩은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발렌타인 17 미니어처와 인증카드로 구성됐다. 구매 고객은 문자메시지(#1721) 또는 콜센터(1688-6800)로 인증카드에 적힌 시리얼 넘버를 전송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는 1월 말까지로, 당첨자에게는 발렌타인 17 에디션 코스 2인 식사권,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발렌타인 비즈니스 메모 패드 등을 증정한다.

판매처 전국 주요 발렌타인 판매처 소비자 문의 02-3466-5700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Art of
Blending

04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2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변함없이 일관된 블렌딩의 미학을 실현하고 있는 발렌타인. 그 가운데서도 감각적인 시도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늘 새로운 위스키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잠재된 매력과 새로움을 감싸 안는 포용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 Endless Colors of Ballantine's 감성을 자극하는 발렌타인 17의 컬러풀한 여정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팝업바 오픈과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런칭을 계기로 발렌타인 17을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발렌타인 17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들과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 디너 등은 여성의 취향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위스키를 즐기는 새로운 위스키 테이스팅 문화를 제시했다.

발렌타인은 지난 11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출시를 기념하면서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고객들은 물론, 더욱 다양한 층의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이태원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랑씨엘에 발렌타인 팝업바를 오픈했다. 약 한 달간 운영된 발렌타인 팝업바는 발렌타인만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테마 공간으로, 소비자들의 신선한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그랑씨엘의 이승희 오너 셰프가 발렌타인에 영감을 받아 개발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 디너 요리를 비롯해 박성원 글라스 아티스트가 수작업으로 제작한 5가지 컬러 아트 글라스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미각적 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며 발렌타인의 매력을 한층 더 배가시켰다. 또한 발렌타인은 조대연 바텐더와 함께 칵테일 레시피를 새롭게 개발하여, 발렌타인 17과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베이스로 한 다채로운 칵테일을 선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발렌타인을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다수 마련돼 인기를 얻었다. 팝업바 오픈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발렌타인 17 핫초코를 제공하는 프리 칵테일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팝업바 방문 고객들에게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샷잔에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를 담아 제공하면서 새로운 음용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했다.

발렌타인 엠버서더가 함께한 멘토링 클래스 역시 누구나 위스키에 대해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누구든지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게 한 점도 좀 더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의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게 신경 쓴 부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차별화된 마케팅에 적용하여 프레스티지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발렌타인. 앞으로도 위스키를 즐기는 새로운 음용 스타일과 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 아이콘으로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Colorful Collaboration, 5 Colour Art Glass

발렌타인과 아티스트의 만남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발렌타인 17과 4가지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컬러가 다른 각각의 아트 글라스에 담아 음미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 유리 공예 분야의 유명 아티스트, 박성원 작가와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이 작품을 통해, 발렌타인 17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4가지 핵심 몰트의 컬러풀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은 발렌타인 17과 이를 구성하는 4가지 주요 몰트를 강조한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글라스의 형태는 새롭게 출시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롱 피니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라즈베리의 달콤한 향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퍼지는 글렌토커스 몰트의 풍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아트 글라스의 하단은 소의 뿔 모양처럼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다. 좁은 아랫부분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점점 넓게 퍼지는 디자인으로, 잔을 기울였을 때 발렌타인 17과 각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몰트들이 가진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아트 글라스는 발렌타인 17년의 완벽한 블렌딩을 실현하는 주요 몰트들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발렌타인 17 블렌딩의 '중심'을 담당하는 글렌버거 몰트, 발렌타인 17의 첫 느낌인 '부드러움'을 여는 스카파 몰트, 발렌타인 17의 '바탕'을 이루는 베이스, 밀튼더프 몰트 그리고 완벽한 '피니시'를 담당하는 글렌토커스 몰트의 역할이 글라스의 컬러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특별한 컬러 아트 글라스를 통해 발렌타인 17이 선사하는 블렌딩의 미학을 더욱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다.



PROFILE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유리조형학과를 졸업했다. 워싱턴 Pilchuck Glass School에서 수학하였으며, 경희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하여 제9회 남서울 국제유리조형 워크샵에서 Glass Blowing 강의를 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혁신적인 몰드로 발렌타인 21의 특별한 아트 글라스를 제작하여, 발렌타인과 이미 한 번의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글라스 아티스트 [박성원]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리를 재료화하여 작품을 만드는 유리 조형 분야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유리 재료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5컬러 아트 글라스에 대해 직접 설명해 준다면.

위스키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데 큰 의미를 둔 작품입니다. 특히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의 특징인 '롱 피니시(Long Finish)'에서 영감을 얻어 글라스의 스템(stem) 부분이 소뿔의 형태처럼 길게 뻗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발렌타인이 선사하는 깊은 여운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는 글라스입니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에 대한 첫 느낌은.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발렌타인 17과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를 먼저 맛보게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마침 일본에서 글라스 컬렉터 분께서 오셔서 함께 시음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기존의 발렌타인보다 산뜻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 이번 작업에 어떠한 영감을 주었는지.

평소 발렌타인 위스키를 좋아해선지 발렌타인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의뢰 받았을 땐 무척 반가웠습니다. 특히 아트 글라스를 통해 위스키를 즐기는 새로운 음용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컨셉 자체가 글라스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저마다의 개성이 묻어나는 이 블렌드들의 고유의 매력을 상징적인 컬러로 표현하는 데 있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글라스의 형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유리에 색을 입히는 재료는 덩어리, 가루, 알갱이 형태 등 다양한데, 최대한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위해 컬러 알갱이를 사용해 컬러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저는 주로 자연물에서 모티브를 얻곤 하는데, 인위적인 것보다는 수작업을 통해 신선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편입니다. 아트 글라스들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기와 모양은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잔마다 조금씩 변화를 준 리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발렌타인 보틀 형태의 플레이트도 함께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 전 발렌타인 보틀의 형태가 눈에 익도록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병목 부분과 보틀의 밑부분 등 두세 가지 정도의 포커스를 강조하면서 발렌타인 보틀의 형상을 딴 플레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발렌타인의 메인 컬러인 네이비와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의 라즈베리 버건디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발렌타인만의 매력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발렌타인은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친숙한 존재로, 오래 봐왔고 익숙하지만 늘 새로운 맛에 대해 기대가 되는 매력적인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역시, 오랜 친구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내년을 목표로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리로 의자나 테이블 등 가구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하려고 합니다. 5컬러 아트 글라스처럼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선보일 예정이고요. 📌

6 Colorful Recipes for Ballantine's 17 Cocktail 발렌타인 17, 그 숙성의 깊이를 느끼다 6가지 위스키 칵테일 레시피

17년 이상 숙성된 최상급 원액들이 모여 블렌딩의 미학을 선사하는 발렌타인 17. 이 조화로운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은 여타의 칵테일과는 그 깊이가 다르다. 뜻밖의 재료와도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발렌타인 17과 네 가지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은 물론 색다른 면모 또한 머금고 있는 6가지 위스키 칵테일의 특별 레시피를 공개한다.

Ballantine's 17 Glenburgie Espresso

숙성 커피로 깊이를 더한 풍미 깊은 칵테일

2주 동안 숙성된 '코스타리카 블랙펠' 커피를 블렌딩한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에스프레소'는 발렌타인 17 글렌버기의 우아하게 균형 잡힌 풍부한 향을 살리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더한 위스키 칵테일이다. 숙성된 커피를 사용함으로써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의 특별한 가치를 한층 더 깊게 각인시켰다.



Ballantine's 17 Glentauchers Berry Berry

미각을 돋우는 상큼한 칵테일

새콤달콤한 라즈베리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에 풍부한 베리를 더하고 레몬의 시트러스함과 산뜻함을 강조한 위스키 칵테일. 여성의 취향이 섬세하게 반영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베리 베리'는 위스키 라벨과 같은 붉은 컬러로 입맛을 가볍게 돋우고 활기 넘치는 느낌을 가미했다.



Ballantine's 17 Scapa Vanilla

순수 자연을 머금은 은은한 칵테일

'발렌타인 17 스카파 바닐라'는 우아하고 세련된 발렌타인 17 스카파에 은은하고 향긋한 자스민 티를 우려내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더하고, 바닐라로 은은한 단맛을 살린 위스키 칵테일이다. 함께 들어 있는 블루큐라소와 토닉워터로는 스코틀랜드 스카파 지역의 은은한 바다 내음을 표현했다.



Ballantine's 17 Glentauchers Long Finish

긴 여운의 감미로운 칵테일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롱 피니쉬'는 벌꿀의 감미로움과 은은한 꽃향기를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에 더해 달콤한 풍미를 결코 가볍지않게 살린 위스키 칵테일이다. 시트러스한 레몬과 스파이시한 진저얼 또한 이 위스키만의 특징을 더욱 강조해 준다. 어떤 음식에도 조화롭게 어울리며 긴 여운을 선사하는 롱드링크의 이미지를 입혔다.



Ballantine's 17 Miltonduff Orange Cinamon

전통 음료가 어우러진 독특한 칵테일

패션후르츠의 오렌지, 파인애플 등의 향미로 밀튼더프만의 시트러스함은 살리고 수정과의 스파이시함과 호두, 잣 등 견과류를 더해 발렌타인 17 밀튼더프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오렌지 시나몬'은 한국의 전통 음료와 밀튼더프의 특별한 조화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위스키 칵테일이다.



Ballantine's 17 Glentauchers Earl Grey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수한 칵테일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얼그레이'는 은은한 꽃향기와 시트러스 향을 한층 더 이끌어 내기 위해 얼그레이 홍차를 인퓨전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위스키 칵테일이다. 묵직한 바디감에 달콤하고 우디한 맛을 더하기 위해 헤이즐넛을 더했으며,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의 부드럽고 섬세한 맛과 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



Ballantine's 17 Signature Lunch & Dinner

오감을 채우는 환상적인 마리아쥬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 디너

끊임없는 혁신으로 블렌딩의 미학을 실현하는 발렌타인과 그랑씨엘의 이송희 오너 셰프의 색다른 만남은 발렌타인 17 시리즈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 디너’를 탄생시켰다. 최상의 만찬이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식탁은 팝업바 오픈 기간 내내 그랑씨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풍경이었다.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의 런칭과 함께 이태원 그랑씨엘에 마련된 발렌타인 팝업바에서는 발렌타인 위스키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중 흥미를 끈 부분은 그랑씨엘 셰프와 함께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메뉴를 선보인 것.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특별한 풍미와 어우러지는 그랑씨엘만의 시그니처 런치 & 디너는 미식가들의 발길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메뉴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고민에 빠질 법한 풍성한 시그니처 코스 요리는 이탈리아인 투스칸 스타일을 그랑씨엘만의 스타일로 탁월하게 재해석하는 이송희 오너 셰프에 의해 감각적으로 구성됐다. 꼭 필요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인 이탈리아인 투스칸 스타일은 깔끔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동을 주기 때문에 발렌타인 17 시리즈의 예술적인 블렌딩에 스며 있는 복합적인 풍미를 오롯이 음미하기에 더없이 탁월한 코스다.

발렌타인 17의 다양한 음용 스타일은 시그니처 런치 및 디너 코스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제안됐다. 신선한 재료가 담긴 여러 종의 파니니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랑씨엘의 인기 파스타로 구성된 런치는 입안을 상쾌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발렌타인 17 위스키 칵테일과 함께 제공되어 나른한 오후에 싱그러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디너 I 코스는 소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살려낸 웻에이징 한우 스테이크와 구운 닭다리살 중 한 가지를 메인으로 선택하면 된다. 부드러운 발렌타인 17 혹은 발렌타인 17 스카파로 드레싱을 한 사이드 디쉬와 함께 글렌토커스 에디션에 담긴 라즈베리의 부드럽고 긴 여운을 충분히 음미하며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너 II 코스^[*]는 발렌타인 17 오리지널을 포함한 5가지 발렌타인 17 시리즈의 테이스팅이 가능한 ‘5컬러 아트 글라스 컬렉션’이 함께 제공되어 디너와 함께 즐기



>>

01. 발렌타인 보틀 모양의 특별한 아트 플레이트에 담긴 그랑씨엘의 추천 요리
02. 발렌타인 17 칵테일 1잔과 함께 제공되는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는 다양한 미식의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디너 메뉴를 주문한 이들에게는 ‘발렌타인 17 미니 멘토링’을 통해 발렌타인 위스키에 숨겨진 완벽한 균형감과 숨겨진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어졌다. 발렌타인 보틀 모양의 특별한 아트 플레이트에 제공된 그랑씨엘의 스페셜 플레이트는 발렌타인 위스키와 시그니처 코스에 곁들여 즐길 때 가장 발렌타인다운 식탁을 완성했다.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결코 잊을 수 없는 맛과 향, 그리고 그에 영감을 얻어 창조된 섬세하고 정갈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런치 & 디너가 선사해 주는 이채로운 순간들은 글렌토커스의 따뜻한 버건디 컬러로 물든 발렌타인 팝업바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었다. 



디너 II 코스^[*]

5가지 발렌타인 17 시리즈 테이스팅 세트와 함께 발렌타인 17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로 맛을 낸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너 코스

Special Interview



그랑씨엘 오너 셰프 [이송희]

“발렌타인 위스키와 이탈리아인 푸드와의 만남은 처음 시도해 보는 콜라보레이션이라, 개인적으로도 무척 설레고 흥미로운 도전이었어요. 특히 새롭게 오픈한 그랑씨엘 이태원점 전체가 발렌타인 팝업바로 운영되는 뜻깊은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양한 발렌타인 17 시리즈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랑씨엘만의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메뉴를 통해 조화로움 속에 숨겨진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Ballantine's 17 Mentoring @Grand ciel

발렌타인의 예술적 블렌딩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발렌타인 팝업바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된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는 그동안 일부 위스키 애호가에게만 한정되었던 위스키 클래스를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평소 접하지 못했던 발렌타인의 히스토리를 알게 되고, 발렌타인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발렌타인의 다채로운 매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자리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블렌딩 그 내면을 읽다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 런칭 기념으로 진행된 위스키 클래스였던 만큼, 블렌딩의 미학을 자랑하는 ‘발렌타인 17’과 4가지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 볼 수 있었다. 발렌타인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의 설명에 따라 참여자들은 발렌타인 17을 먼저 시음한 후, 발렌타인 17을 구성하는 핵심 몰트가 강조된 각각의 에디션을 한 잔 한 잔 음미해 가며 비교하는 모습이었다. 발렌타인 17 오리지널에 이어, 테이스팅은 발렌타인 17의 첫 느낌인 ‘부드러움’을 여는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에서부터 발렌타인 17의 ‘핵’ 역할을 하는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발렌타인 17의 ‘심장’과도 같은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 차례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밀튼더프 에디션은 오크 향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혹시 어떤 오크 통에서 숙성이 된 건가요?”라며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스카파 에디션은 역시 바닐라 향이 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본인이 느낀 각 에디션의 맛과 향을 가감 없이 나누기도 했다.

다양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스키 테이스팅의 기회

발렌타인 팝업바 2층에 마련된 프라이빗한 공간,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룸’은 한 달간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다. 매일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회원, 매체 기자, 일반 고객 등 다양한 이들을 이곳에 초대하여 특별한 위스키 클래스를 진행했기 때문. 특히 발렌타인 앰버서더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발렌타인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선물했다. 각자에게 주어진 터치 패드 화면을 통해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 발렌타인의 시작에서부터 20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온 고유의 헤리티지에 대한 소개를 들은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발렌타인을 처음 접한 이들은 물론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던 이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은 쉽게 얻을 수 없던 내용이었던 것.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질문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쌓아 가는 모습이었다.



>>

01. 발렌타인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가 터치 패드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02. 더욱 깊은 향을 느끼기 위해 위스키 원액에 물을 첨가하는 모습
03. 각 에디션 고유의 맛과 향을 비교하는 등 클래스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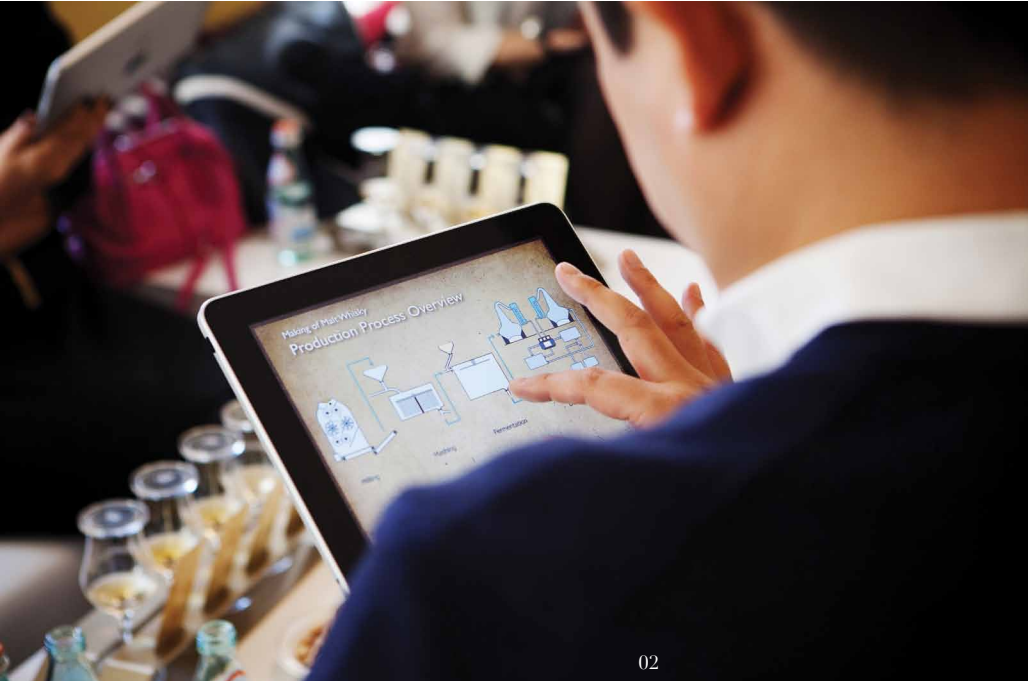


01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만의 매력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던 새로운 에디션,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위스키 클래스의 말미에 공개되었다. 발렌타인 17의 '롱 피니쉬'를 담당하는 시그니처 몰트답게 대부분이 라즈베리 향의 긴 여운 속에 오래도록 빠져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터치 패드에 직접 테이스팅 휠을 체크하면서 직접 경험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의 맛과 향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클래스에 참석한 여성들은 이번 에디션 특유의 은은한 시트러스의 풍미와 입안을 감싸는 라즈베리 향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을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도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사람들은 발렌타인 칵테일을 만든 바텐더에게 직접 레시피를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평소 위스키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젊은 층과 여성들도 발렌타인의 다양한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이번 위스키 클래스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이 가져다주는 긴 여운 만큼이나 그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각인될 추억을 안겨 주었다. 🍷



02

>>

- 01.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 여성들도 발렌타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 02. 위스키가 숙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 03. 참가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된 테이스팅 키트
- 04. 눈으로 직접 위스키의 빛깔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03



04

Mini Interview

새롭게 발견하는
발렌타인 17의 색다른 면모



호텔 리츠칼튼 서울 THE RITZ BAR 이신호 지배인

“테이스팅한 여러 가지 에디션 중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감각적인 테이스트로 젊은 층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몰트 향이 깊게 퍼지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롱 피니쉬’ 칵테일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풍미가 매력적이었어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발렌타인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KPGA 경영관리팀 최상수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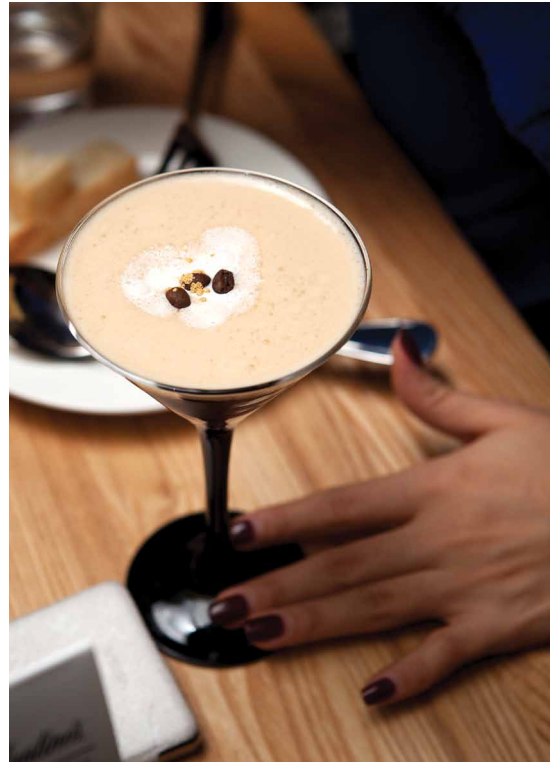
“위스키 클래스를 통해 각각의 에디션들을 비교해 보며 테이스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사님의 설명을 듣고 테이스팅을 해보니 시간적인 부분에 서부터 맛과 향의 차이까지 여실히 느껴지더군요. 클래스 시작 전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너’ 코스 요리를 즐기며,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얼그레이’ 칵테일을 곁들였는데, 푸드 메뉴와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발렌타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Ballantine's
& Women

05 The Way That Women Love Ballantine's

섬세한 여성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서서히 그녀의 취향에 맞추고 매력적인 어필로 오감을 자극하더니
이내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위스키가 있다면 어떠한가.



— To Lady, Colorful Rhapsody of Ballantine's

여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발렌타인의 랩소디

지난 한 달간 발렌타인 팝업바에서 발렌타인을 즐기는 여성들을 발견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동석한 지인들과 함께 발렌타인 칵테일을 마시거나, 식사 메뉴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렌타인 위스키 한 잔을 곁들이는 여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광경이 되었다.

발렌타인 17 글렌토크스 에디션 런칭을 기념하는 오프닝 파티가 치러지던 날, 발렌타인 팝업바는 유난히 젊은 여성들의 발길로 붐볐다. '버건디 & 네이비 블루'의 드레스 코드에 맞게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갖춰 이곳을 찾은 그녀들은 이내 발렌타인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로맨틱한 파티의 밤을 즐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환상적인 하모니와 가수 김조한의 소울 가득한 보이스는 여심을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발렌타인은 여성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라즈베리 향의 발렌타인 17 글렌토크스를 런칭하면서, 젊은 층의 여성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다소 높은 위스키의 도수에 망설이는 여성들을 위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발렌타인 칵테일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시선을 끄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만든 샷잔에 발렌타인 17 글렌토크스를 담아 제공하는 등 관심을 높였다.

또한 발렌타인 앰버서더가 함께하는 위스키 클래스에 많은 여성들을 초대하여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음용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스키 클래스에 참석한 여성들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과 동시에 뒤늦게 발렌타인의 매력을 접하게 된 것에 안타까워했다. 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인지 남성 참가자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남성의 상징'으로 지칭되었던 위스키는 이제 옛말. 부드럽고 감미로운 여운을 선사하는 발렌타인은 어쩌면 섬세하고 감각적인 여성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위스키가 아닐까. 발렌타인의 새로운 변신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발렌타인 팝업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멘토링 클래스를 경험하고,
발렌타인 17시그니처 런치까지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특히 라즈베리 향이 깊게 느껴졌던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는 제 취향에 잘 맞아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 초콜릿으로 만든 샷잔으로 마셔 보니 더욱 색다른 기분이에요.

_ (주)엔와이컴엔터테인먼트 **윤은희** 대표



Women in Ballantine's Pop-up Bar 발렌타인 팝업바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성들

“

여러 종류의 발렌타인 칵테일을 맛보았는데, 특히 지금 마시고 있는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베리베리’ 칵테일이 상큼하면서도 가장
맛있었어요. 가수 김조한 씨의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들으며 발렌타인을
즐길 수 있었던 오프닝 파티의 순간 또한 기억에 남네요.

_ 구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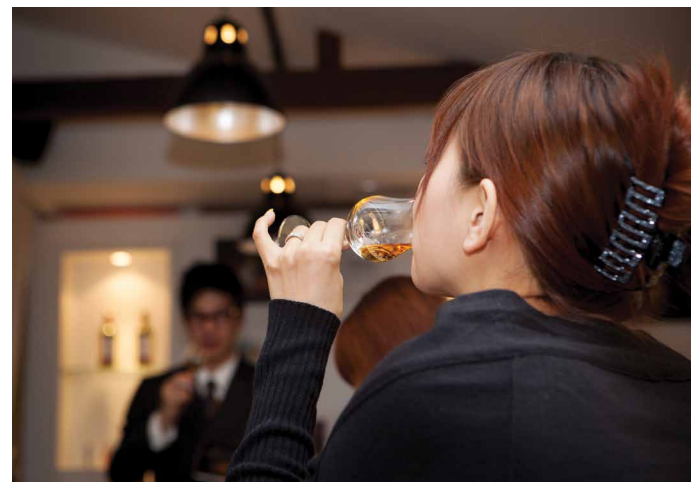
발렌타인을 레시피로 한 칵테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평소에 위스키를 잘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팝업바를 찾기 전에는 살짝
걱정이 됐는데, 부드러운 목 넘김의 발렌타인 칵테일은 여성들이
마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_ 김세연

그동안 싱글 몰트 위스키만 줄곧 경험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블렌디드 위스키의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팝업바에서나 각종 이벤트를 통해 봤을 때 계속
젊어지는 듯한 발렌타인의 이미지가 여성의 입장에서 반갑네요.
멘토링 클래스에서 테이스팅한 여러 가지 에디션 중에서는 발렌타인 17
스카파의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_ 호텔 홍보 담당 **김남호**

”





이미진이 입은 섹시한 블랙 드레스
바네사브루노, 볼드한 브레이슬릿과 이어링.
반지는 모두 주코줄리. 최예린이 입은
우아한 블랙 미니 드레스 아이잘컬렉션.
핑크 이어링과 브레이슬릿 주코줄리.
하연화가 입은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원피스
아이잘컬렉션.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볼드한 네크리스 주코줄리.

발렌타인과 함께한 스타일리시한 그녀들의 파티

런웨이와 브라운관을 누비며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한 3명의 톱 모델들을 만났다. 열정으로 완성된 아름다움엔
골프와 발렌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녀들의 삶과 열정, 여유에 대해 물었다.

editor Cho Jae Kook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 직관적인 매력일까? 흔히 말하는 마릴린 먼로의 풍만한 몸매, 오드리 헵번의 우아한 목선과 가지런한 눈썹 같은 것들? 우리는 정말 그런 것에 감동받는 것일까? 시선을 잡아끄는 외적인 부분에서만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으로 침전되는 관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성이 지닌 진정한 아름다움, 그 모호한 흔적은 지난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 모인 3명의 여성과 그녀들이 말하는 골프와 발렌타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미녀들의 여가, 골프

이제 갓 30대를 넘긴 세 모델의 평균 신장은 177cm로 가느다랗고 긴 팔과 다리,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는 이목구비를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들이다. 지난 2002년 슈퍼모델 입상으로

시작해 런웨이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이미진과 2004년 월드 베스트 모델 선발에서 부산 경남 대회 1위를 차지한 하연화, 앙드레김 패션쇼와 서울 컬렉션에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최예린은 엇비슷한 나이의 절친들이다. 지난 2008년 서울 컬렉션에 함께 서며 첫 인사를 나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끌림에 금세 친해졌다. “모델은 개인 작업이 많고 경쟁이 심한 직업이라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 어려워요. 미진이와 연화예진 그런 경계심이 없었어요.” 만연니 최예린의 말이다. 처음부터 서로 알아보는 관계라는 것이 있다. 막내 하연화에게는 골프가 그랬다. 2년 전 촬영으로 처음 필드에 나섰다가 잡아본 클럽 느낌에 매료돼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갔다. “패션쇼나 스케줄이 없을 때면 늘 연습장을 찾았어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공을 보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2~3시간씩 꾸준히 연습한 결과 남성 골퍼들도 부러워할 210야드 드라이버 비거리가 나왔다. 반면 이제 갓 골프를 시작한 최예린은 아직 골퍼가 어렵기만 하다. “필드에 나서면 지쳤던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을 가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트라이트와 미디어의 관심, 고급스러운 의상에 둘러싸인 화려한 일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부침이 심한 것이 모델이란 직업이다.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한 직업이에요. 늘 체중 관리와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야 하고 최상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해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녀들의 스타일리시한 선택, 발렌타인

패션 모델로 활동한 지 10년을 꼬박 채워가는 3명은 이미 업계에서 소문난 프로페셔널들이다. 도회적인 감성의 시크한 모습부터 수줍으면서도 아름다운 신부로, 때로는 TV 쇼 프로의 진행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며 쌓아온 시간은 그녀들을 정상에 올려줬지만 책임감도 동반했다. “어려 일들을 했지만 요새는 무대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커리어를 쌓기 보단 제 얼굴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냥 연약할 것 같아 보이는 그녀들이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면 함께 시간을 갖는다. 고된 일상에서 얻은 생체기와 피로를 치유하고 위안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자리엔 언제나 발렌타인이 함께한다. “체중에 민감한 직업이다 보니 칼로리가 높은 술보다 위스키를 즐기는 편이에요. 특히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은 빠지지 않는 제4의 멤버”라며 하연화가 테이스팅 잔을 기울인다. “17년은 다른 위스키에 비해 넘김이 부드러워요. 반면 삼킨 이후 입안에 가득 퍼지는 풍부한 맛은, 반할 수 밖에 없어요!” 이미진은 17년에 매력에 대해 말한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열정이 느껴지는 그녀들과 닮아 있었다. 그녀들이 즐기는 발렌타인 17년은 황금빛 호박색의 아름다움, 오크향의 달콤함, 감미로운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스코틀랜드를 가장 잘 담아낸 위스키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17년은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소품 같은 멋스러움을 뽐낸다. 올해 이들에게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지난 4월에 개최된 발렌타인 챔피언십이다. 경기가 개최됐던 블랙스톤을 찾아 세계 톱 플레이어들의 플레이와 발렌타인을 마음껏 즐길 기억은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추억이다. “내년에도 꼭 함께 가자고 약속했어요. 발렌타인과 골퍼가 함께 있는 자리만큼 특별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녀들에 대해 ‘아름답다’라는 감탄이 새어나왔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의 내면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란 열정으로 오랜 시간 만들어낸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세기 가까이 정상을 지켜오고 있는 발렌타인처럼. ©

프로그래머: 홍정아 | 스타일리시한 파티: 김민지 | 문: 바네사브루노(02-3443-0996), 아이잘컬렉션(02-772-3352), 주코줄리(02-511-9761), 메이트리얼 | 오리지널은이것이 원상고 02-549-3470 | 헤어: 화니(여문자) | 원상고 02-549-3470



Her Best Choice



발렌타인 오리지널 17년은 뛰어난 밸런스로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블렌디드 위스키다. 달콤한 오크향과 풍부하면서도 감미로운 바디감은 스코틀랜드의 대자연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머금을 땀 향긋함과 부드러움을 전하고 목 넘긴 이후로 풍부한 바디감이 입안 전체를 감싸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블렌딩은 위스키 중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구현해 남성들 비롯해 여성들에게도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연주가 입은 심플한 블랙 미니 드레스 **에피타프**, 볼드한 블랙 네크리스 **스와로브스키**, 깃털 모티브 뱅글 **토스**, 왼손에 긴 반지 **판도라**, 오른손에 긴 반지 **스톤헨지**, 조혜영이 입은 원피스는 **오브제**, 참 장식 팔찌 **판도라**, 드롭 이어링 **스와로브스키**, 볼드한 크리스탈 반지 **스와로브스키**, 김유미가 입은 구슬 장식 미니 원피스 **모스키노**, 반지 **스와로브스키**, 장윤서가 입은 블랙 플레어 원피스는 **타임**, 핑크빛이 은은한 네크리스 **스와로브스키**, 포임 디테일의 뱅글 **토스**.

성숙과 숙성의 시간 메종 페르노리카에서 가진 발렌타인 파티

최고의 수식어를 획득한 아름다운 미스코리아 4명과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 발렌타인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editor** Cho Jae Kook

‘최고’라는 수식어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요구된다. 타인보다 몇 곱절의 노력과 절제가 필요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스코리아들의 뒷이야기는 그래서 대중 호기심을 산다. TV 브라운관 스크린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는 그녀들은 모습은 열정의 땀방울로 이뤄진 것이다. 한 해 단 3명의 여성에게만 수여되는 최고의 아름다움, 미스코리아 4명과 발렌타인이 만나 최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혜영(1997년 미스코리아 선), 김연주(1999년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2006년 미스코리아 미), 장윤서(2006년 미스코리아 선)는 현재 탤런트와 영화배우, 방송 연예인과 사회인으로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닮은 구석이 많다. 드라마 <연애시대>와 <천국보다 낮선>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현재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만연니 조혜영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특징은 뭐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열정을 갖고 임하는 부분이 서로 비슷해요”라고 말한다. 조혜영의 말에 동조하며 <SNL 코리아>와 TV 영화 <야차>에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막내 장윤서는 열정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 대회 이후 배역을 따내기 위해 500번 이상의 오디션에 치른 집념의 소유자다. “흔히 미스코리아라는 이름이 방송 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특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의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해요.” 탤런트로 활약하고 있는 김연주 역시 마찬가지. “원래 꿈이 연기자였지만 미스코리아 특례로 연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곤 해요. 가끔은 대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미스코리아에 당선되기 위해 외모뿐 아니라 열정과 자신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연기도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어요.” 미스코리아



들은 항상 한국을 대표하는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에 금이 가지 않도록 무엇이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한때 방송 MC로 활동했던 김유미는 슈퍼우먼으로 통한다. 의류환경학 전공을 살려 현재 패션업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인 남편 최희섭의 내조와 3살 아이를 키우며 가정에서는 목소리 나는 주부다. 항상 미스코리아로서 자부심을 갖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숙함을 얻기 위해 그녀들이 거처온 시간은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닮아 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재료들이 하나의 맛으로 어우러지고 오크통에서 부침과 침묵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발렌타인은 그녀들이 여유와 삶을 즐기는 방식이다. “발렌타인은 상황과 기분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부터 리큐어를 섞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까지 매번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그녀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 중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골프. 모두 핸디캡 20 남짓한 수준급 플레이어들이지만 바쁜 일상에 필드에 나가기 어렵다. 그녀들이 필드에 나서면 모든 이목이 집중된다. 늘씬한 장신의 미녀들이 수준급 실력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큰 신장과 긴 팔과 다리는 웬만한 남자 골퍼들보다 먼 비거리를 선보인다. “골프는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해소해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나 꼭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삶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핸디캡 10 남짓의 수준급 골퍼인 조혜영이 말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숙함을 얻기 위해 그녀들이 거처온 시간은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닮아 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재료들이 하나의 맛으로 어우러지고 오크통에서 부침과 침묵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발렌타인은 그녀들이 여유와 삶을 즐기는 방식이다.”

한다. “매년 2회 정도 미스코리아 모임인 ‘녹원회’에서 두차례 총회가 있어요. 선후배 간 밀렸던 대화도 나누고 라운드도 즐기고 발렌타인을 기용여요. 미스코리아에 출전한 가장 큰 기쁨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막내 장윤서는 말한다. 그녀들에게 아직도 ‘미스코리아’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 때문이다. 그녀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하며 모든 것에 열정적이다. 마치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상을 지켜온 발렌타인처럼. ©

Ballantine's Pop Up Bar @Grand ciel 미녀 골퍼들과 함께한 발렌타인 파티

위스키와 골프의 공통분모는 '가치'와 '전통'이다. 골프가 가진 무한한 매력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미녀 골퍼 방송인들과 위스키 문화의 중심에 있는 발렌타인을 즐겼다. editor Cho Jae Kook



(왼쪽부터) 신나송 프로가 입은 버건디 컬러 플레어 원피스와 네크리스 모두 타임 슈즈 브라이드앤유. 최여진 프로가 입은 블랙 슬리브리스 원피스 타임 슈즈 브라이드앤유. 박시현 프로가 입은 버건디 슬리브리스 톱과 트위드 스커트 모두 타임 슈즈 브라이드앤유.

특정 지식이나 문화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숨겨진 조력자가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나 대가를 계산치 않는 순교자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적 문법으로 다듬어 문턱을 낮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골프가 그랬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사회 특정 계층만 즐길 수 있는 사교적 활동이었던 것이다. 2013년 대한민국의 골프는 어떨까? 단언컨대 대중화라는 수식어가 붙기에는 여전히 대중에게 골프 진입 장벽은 높기만 하다. 대한민국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디어 골퍼 미녀 3인방에게 눈길이 가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이다.

최여진, 신나송, 박시현 프로는 TV 방송과 인쇄매체, 현장에서 대중에게 골프의 매력을 전달하는 전도사들이다. 미디어 골퍼 1, 2세대로 통하는 그녀들이 선택한 행로는 이제껏 어떤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8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근래 국내 골프 문화가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대중이 골프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라고 고참 방송인 최여진이 말한다. 그녀는 방송 외에 2권의 책을 출간했다. <헬로 골프>와 <센스 골프>. 핑크빛 표지에 적힌 말랑말랑한 단어는 기존 딱딱한 문법의 골프 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던 아마추어 골퍼들, 특히 여성 골퍼들을 위한 배려다. 레슨 내용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아냈다. 신나송 프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가 고맙기만 하다. “다른 프로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요. 그러기에 더욱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방송을 시작하고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대학원에 진학해 체계적인 학습을 익히고 홀로 영어 실력을 다지는 등 자기계발에 열심이다.

발렌타인의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의 고민은 ‘어떻

게 하면 질 좋은 위스키를 주조해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였다. 무수한 시도와 도전 끝에 조지 발렌타인은 몰트위스키와 그레이위스키의 황금 조합을 찾아내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블렌디드 위스키, 발렌타인의 탄생은 그녀들의 현재 모습과 닮았다. 지난달 이태원의 그랑씨엘에 오픈한 ‘발렌타인 팝업 바’에서 가진 그녀들의 파티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녀들은 발렌타인 17년 디스틸러리 에디션과 오직 발렌타인 팝업 바에서만 선보이는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메뉴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녀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이며 팬이다. 미디어 골퍼 1세대 최여진은 지난 8년간 방송으로 다져진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응원하고 격려한다. “공교롭게 여진 언니가 진행하는 방송과 제 방송이 동시간대에 방영이 돼요. 일종의 경쟁 상대인데 본 방영 때 언니가 제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조언해주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최근 첫 생방송을 마친 박시현 프로는 만언니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했다. “후배들과 시청자들에게 항상 모범이 되는 미디어 골퍼로 남고 싶은 것이 목표예요. 성실히 활동하면서 더욱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골프에 재미를 붙이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닐까요?” 모두를 대표해서 최여진 프로가 답한다. 방송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자리에는 항상 발렌타인이 함께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일상에서 얻은 생기기를 치유하는 자리에 제적이고 무엇보다 개성 넘치는 세명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 “서로의 주량과 취향이 전부 다르지만 발렌타인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풍부한 보디를 느낄 수 있는 원액부터 리큐어와 함께 즐기는 캐주얼한 방식까지. 방송도 발렌타인처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골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



“서로의 주량과 취향이 전부 다르지만 발렌타인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풍부한 보디를 느낄 수 있는 원액부터 리큐어와 함께 즐기는 캐주얼한 방식까지. 방송도 발렌타인처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골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Ballantine's Pop-up Bar @Grand ciel



발렌타인 17년 글렌토커스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발렌타인에서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팝업 바를 오픈한다. 팝업 바 1층에서는 발렌타인 17 디스틸러리 에디션 시리즈와 그랑씨엘 오너셰프인 이승희가 요리한 다양한 런치, 디너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특히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너 메뉴를 주문하면 발렌타인 17 오리 지날을 비롯해 총 4가지 발렌타인 17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맛 볼 수 있다.



아름다운 3명의 커리어 우먼과 함께한 발렌타인 파티

열정의 심포, 발렌타인

아름다움의 필수 요소는 열정이다. 화색빛의 도심에서 정상을 위해 땀 흘리는 그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심포, 발렌타인과 함께했다. editor Cho Jae Kook



도심에서의 일상은 지열하다. 꽉 막힌 도로의 러시아워를 지나 햇볕조차 찌기 힘든 회색 빌딩 숲에서 보내는 하루는, 마치 시속 200km로 달리는 바이크 위에서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 마냥 위태롭다. 아스팔트의 열기가 식는 저녁이라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랩톱 대신 위스키 잔을 쥐고 여유를 즐겨보자. 이것은 오직 이 도시에서 열정적으로 하루를 보낸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지난달 8일, 이태원에 위치한 그랑씨엘의 '발렌타인 팝업 바'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김민아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방송인 김윤정, 외식 비즈니스 사업가인 정은희, 3명의 커리어 우먼은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고 발렌타인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한 한 해였어요. 국내 프로야구가 큰 사랑을 받은 덕분에 대중의 관심이 늘어났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국내 프로야구 여신으로 불리는 김민아 아나운서는 지난해 자신이 이뤄낸 것들을 겸손히 평했다. 열혈 마니아 팬들도 그녀의 야구 지식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카메라 앞이나 밖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겠는가?

“한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는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간 놓치고 지나온 것들,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청담동에서 와인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정은희는 일상을 다시 정돈할 예정이다. 삶에서 심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성격이나 취향도 모두 다른 그녀들이지만 각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 바로 '골프'와 '발렌타인'. “부모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어요. 아직 비기너 수준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최근 4년째 진행했던 라디오 DJ에서 하차한 김윤정은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지위나 연령, 취향이 달라도 서로 격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골프 아닐까요? 라운드에 나서면 필드가 놀이터처럼 느껴져서 즐

포토부터 외식 비즈니스 사업가 정은희, 아나운서 김민아, 프리랜서 방송인 김윤정

“
원액의 맛이 뛰어난
발렌타인 17년은
칵테일로 즐겨도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롭게 변신하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



거워요.” 김민아 아나운서의 골프 찬사가 이어진다. 김윤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핸디 10개 남짓의 수준급 플레이어다. “민아는 어렸을 때 피겨를 해서 그런지 운동 신경이 좋아요. 장타 드라이버는 보는 사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정은희는 실수가 별로 없는 침착한 플레이를 펼친다.

3명의 커리어 우먼은 이날 자신들의 숨겨진 재능을 확인했다. 위스키 멘토링 클래스에서 실시한 테이스팅 테스트에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것. 라며 김민아 아나운서가 발렌타인 17년 리미티드 에디션 글렌 토커스가 첨가된 칵테일을 즐기며 말했다. “발렌타인 17년 리미티드 에디션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것에 놀랐어요.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김윤정이 말한다.

내년에도 그녀들은 열정적인 일상을 보낼 것이다. 김윤정은 그간 방송 활동을 뒤로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정은희는 봄이 찾아오기 전에 하와이로 골프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매년 핸디캡을 줄이겠다고 마음먹기만 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싱글 골퍼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아 아나운서는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야구 프로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력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정글 같은 도심에서 자신의 영역을 위해 땀 흘리는 커리어 우먼들, 그녀들의 도전과 열정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최고의 맛을 선사한 발렌타인처럼. ©



BALLANTINE'S 17 GLENTAUCHERS EDITION & 5 COLOUR ART GLASS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시리즈의 네 번째 제품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이 탄생했다. 새롭게 출시하는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베리를 떠올리게 하는 버건디 컬러의 독특한 색채 조합으로 기본 리미티드 에디션 스타일은 이어가면서도 다른 블렌드와 차별되는 개성을 보여준다. 은은한 시트러스 풍미에 여성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라즈베리와 견과류 향, 달콤한 꽃 향이 특징이다. 글렌토커스 에디션 론칭과 함께 발렌타인 17 오리지널과 4가지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아트 글라스를 선보인다. 이번 글라스 협업은 국내 대표 유리 예술가인 박성원 작가와 함께 진행됐으며 각각의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증류소 에디션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특징과 완벽한 밸런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세계의 문화와 예술, 트렌드에 주목하는 당신을 위해,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보는 시간.

런던 보트 박람회
2014.01.04-01.12 / 영국 런던 / www.londonboatshow.com



CARNEVALE *di Venezia 2014*

2014 베네치아 카니발

2014.02.15-03.04 / 이탈리아 베네치아 / www.carnevale.venezia.it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축제의 도시'다. 특히 베네치아 카니발은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다. 외적들이 베니스를 침입하여 도시의 신부들을 납치하자, 도시의 남자들이 가면을 쓰고 외적과 싸워 신부를 되찾아 온 것이 베네치아 카니발의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과 같은 형식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반이며, 그 후 한동안 국가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1979년 다시 시작되면서 그 명성을 이어 왔다.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과 정성으로 현재 베네치아 카니발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베네치아 카니발은 사순절을 2주 앞두고 시작되며,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베네치아에서는 민속놀이, 황소 사냥, 곡예사의 가장무도회 등이 열린다. 전 세계에서 찾아 온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고깔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산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속 골목 곳곳을 누빈다. 이 가면을 통해 과거에는 귀족과 평민이 서로의 신분을 넘나들며 어우러질 수 있었으며, 계급간 소통의 장으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대에도 베네치아 카니발은 중세 귀족들의 화려한 드레스부터 초현실주의적인 모던한 패션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서로의 경계를 잊고 하나가 되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Ballantine's
Pick

01 January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2013.12.06~2014.03.16 / 아침고요수목원
morningcalm.co.kr

'오색별빛정원전'이 다시 겨울의 절정에 돌아왔다. 정원의 나무를 감싼 조명들이 찬란한 빛을 내며 장관을 이루고, 따뜻한 빛으로 물든 겨울의 정취가 동화 속 세상인 듯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신비로운 정원을 여유롭게 거닐다 보면 아름다운 겨울밤과 오색별빛들이 보여주는 빛의 향연에 흠뻑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시드니 페스티벌

2014.01.09~01.26 / 호주 시드니
www.sydneyfestival.org.au/2014

매년 1월, 시드니에서는 연극, 음악, 무용, 시각 예술과 함께 시드니만의 스타일과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신나는 거리 파티가 이어지는 개막의 밤(Festival First Night) 행사를 필두로 3주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도시의 명소마다 백여 가지가 넘는 이벤트가 펼쳐지므로 수준급의 문화 예술을 원 없이 즐길 수 있다.



헬싱키 여행 전시회

2014.01.16~01.19 / 핀란드 헬싱키
www.messukeskus.com

뉴욕 동계패션박람회

2014.01.05~01.07 / 미국 뉴욕
www.fameshows.com

아부다비 미래 에너지 컨퍼런스

2014.01.20~01.22 /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
www.worldfutureenergysummit.com

뒤셀도르프 소비재 박람회

2014.01.04~01.06 / 독일 뒤셀도르프
www.vivanti-messe.de

03 March



ART14 LONDON

2014.02.28~03.02 / 영국 런던
www.artfairslondon.com

2013년 첫 문을 열었던 아트13 런던이 올해는 아트14 런던이란 이름으로 개최된다.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아트 페어, 아트14 런던은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의 화랑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라 수많은 갤러리과 박물관을 통해 문화 예술을 선도하는 런던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페라 마티네 <리골렛토>

2014.03.18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www.sejongpac.or.kr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일락의 왕>이 원작인 오페라 리골렛토는 만투아 공작의 궁정에 붙어 살며 비웃음과 신랄한 풍자를 날리는 곱추 어린광대 리골렛토의 비극적 삶을 그리고 있다. 테너가 주인공인 통념에서 벗어나 바리톤이 주역을 맡아 화려한 광대의 모습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오스트리아 건설 인테리어 박람회

2014.03.08~03.16 / 오스트리아 비엔나
www.wohnen-interieur.at

엘리아후 인발의 쇼스타코비치

2014.03.28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ww.sac.or.kr

정오의 음악회

2014.03.11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www.ntok.go.kr

히로시 스기모토 : 사유하는 사진전

2013.12.05~2014.03.23 / 삼성미술관 리움
www.leeum.org

02 February



점핑위드러브展 _'세기의 인물과 날다' 필립 할스만

2013.12.03~2014.02.23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jumpingwithlove.co.kr

라이프 매거진 최다 기록인 101번의 작품을 표지에 실은 작가 필립 할스만. 기존 초상 사진의 개념을 깨고 확장된 현대 인물 사진의 시초가 된 필립 할스만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당대 최고의 인물 사진 작가였던 그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다양한 세계적 리더들의 점핑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혼란스럽고 지쳐 있던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 영국 왕실의 원자공, 마르크 샤갈, 오드리 헵번 등 그들의 품위와 관습을 해방시켜 본성과 내면을 고집어내는 심리적 초상을 남긴 사진 작가인 필립 할스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로맨틱 라흐마니노프

2014.02.14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ww.sac.or.kr

베를린 국제 건축박람회

2014.02.18~02.21 / 독일 베를린
www.bautech.com

스톡홀름 조명 박람회

2014.02.04~02.08 / 스웨덴 스톡홀름
www.stockholmfurniturelightfair.se

2014 경향하우징페어

2014.02.19~02.23 / 일산 킨텍스
www.khfair.com

04 April



내셔널 지오그래픽 125주년 사진전

2013.06.01~2015.05.31 / 제주도 프시케월드
www.psycheworld.net

창간 125주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125년 동안의 사진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탐험과 발견, 인류의 발자취, 야생의 풍경 등 기념비적인 사진들로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888년 창간 이래 당대 최고의 필자와 사진가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고 촬영한 글과 사진을 통해 깊이 있는 감동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탐험 활동을 장려하고 인류의 중심에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다.



뉴욕 국제 오토쇼

2014.04.18~04.27 / 미국 뉴욕
www.autoshowny.com

퀴켄호프 툴립 축제

2014.03.20~2014.05.18 / 네덜란드 자위트홀란트
www.keukenhof.nl

2014 런던도서전

2014.04.08~04.10 / 영국 런던
www.londonbookfair.co.uk

동경 평면디스플레이 박람회

2014.04.16~04.18 / 일본 동경
www.ftj.jp/ko

EPGA/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결전, 발렌타인이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EPGA / PGA 투어 일정을 소개합니다.

01 JANUARY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EPGA PGA

Hyundai Tournament of Champions

2014.01.03-01.06 / Plantation Course / 하와이 마우이 카팔루아

PGA 투어의 개막전인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1953년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1년부터 현대자동차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전년도 우승자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최고의 프로 골퍼들이 막상막하의 결전을 벌인다.

휴매나 챌린지 EPGA PGA

Humana Challenge in partnership with the Clinton Foundation

2014.01.16-01.19
PGA West (Palmer) / 미국 캘리포니아 라 키타

아부다비 HSBC 골프 챔피언십 EPGA

Abu Dhabi HSBC Golf Championship

2014.01.16-01.19
Abu Dhabi GC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커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 EPGA

Commercialbank Qatar Masters

2014.01.22-01.25
Doha GC / 카타르 도하

웨이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EPGA PGA

Waste Management Phoenix Open

2014.01.30-02.02
TPC Scottsdale / 미국 애리조나 스코츠데일

02 FEBRUARY



월드 골프 챔피언십 EPGA PGA

World Golf Championship _Accenture Match Play Championship

2014.02.19-02.23 / Ritz-Carlton GC / 미국 애리조나 투손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은 연중 4차례 열리는 월드 골프 챔피언십 중 유일하게 세계 랭킹 1위부터 64위의 선수들이 홀별 승패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매치플레이 방식을 채택한다. 이 때문에 스트로크플레이와 달리 흥미진진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선사하기도 한다.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EPGA

Omega Dubai Desert Classic

2014.01.30-02.02
Emirates GC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PGA

AT&T Pebble Beach National Pro-Am

2014.02.06-02.09
Pebble Beach Golf Links /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카운티

요버그 오픈 EPGA

Joburg Open

2014.02.06-02.09
Royal Johannesburg & Kensington GC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노던 트러스트 오픈 EPGA

Northern Trust Open

2014.02.13-02.16
Riviera CC /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픽 파리세데스

EPGA

유럽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유러피언 투어는 1984년 독립하여 주로 유럽에서 대회가 열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시아, 중동 등 비유럽권에 서 개최되는 비중이 높아졌다. www.europeantour.com

PGA

미국과 북미를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PGA 투어는 매년 1월 초부터 경기를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진행되며,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으로 해마다 수많은 공식 대회를 치르고 있다. www.pgatour.com

03 MARCH



유라시아컵 EPGA

EURASIA CUP presented by DRB-HICOM

2014.03.28-03.30 / Glenmarie G & CC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안투어와 유럽프로골프투어(EPG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신생 대회로 올해 1회를 맞는다. 유럽과 아시안투어에서 공인한 유일한 대항전이며 출전 자격에도 제한을 두어, 각 투어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냈던 유럽과 아시아 선수들의 경기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월드 골프 챔피언십 EPGA PGA

World Golf Championships _Cadillac Championship

2014.03.06-03.09
TPC Blue Monster at Doral / 미국 플로리다 도럴

트로피 하산 II세 EPGA

Trophée Hassan II

2014.03.13-03.16
Golf du Palais Royal / 모로코 아가디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PGA

Arnold Palmer Invitational presented by MasterCard

2014.03.20-03.23
Bay Hill Club & Lodge /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발레로 텍사스 오픈 EPGA

Valero Texas Open

2014.03.27-03.30
TPC San Antonio /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04 APRIL



마스터즈 토너먼트 EPGA PGA

Masters Tournament

2014.04.10-04.13 / Augusta National GC / 미국 조지아 오거스타

1934년 시작된 4대 메이저 대회의 하나로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한다. 주로 초청제로 운영하며 세계 마스터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메이저 대회 중에서는 연중 가장 먼저 개최되며, 상업성을 띄지 않는 골프만을 위한 순수 대회로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회라는 평을 받고 있다.

셸 휴스턴 오픈 EPGA PGA

Shell Houston Open

2014.04.03-04.06
Redstone GC / 미국 텍사스 험블

메이뱅크 말레이시아 오픈 EPGA

Maybank Malaysian Open

2014.04.17-04.20
Kuala Lumpur G&CC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취리히 클래식 오브 뉴올리언스 PGA

Zurich Classic of New Orleans

2014.04.24-04.27
TPC Louisiana / 미국 루이지애나 애본데일

볼보 차이나 오픈 EPGA

Volvo China Open

2014.04.24-04.27
Genzon GC / 중국 광둥성 선전

※ EPGA / PGA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입니다.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GREAT THINGS TAKE TIME



스카치 위스키 한 모금의 가치, 위스키 라벨에 새겨진 연산의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모든 위대한 것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 스카치 위스키 병에 적힌 연산에는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최상의 자연 조건과 천연 재료들, 마스터 블렌더의 장인정신, 세대를 걸쳐 이어 내려온 집약된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보틀에 적힌 숫자 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한 병의 위스키가 완성됩니다.

지금, 위스키 라벨의 숫자를 확인하세요.



The Time of Ballantine's

위대한 것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자연이 선사한 축복이자 마스터 블렌더의 기술과 정성으로 빚어낸 발렌타인 위스키, 우리 조상의 탁월한 심미안과 장인정신을 오롯이 담은 전통 건축과 고가구는 이 '시간의 가치'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에디터 이재연(jyeon@noblesse.com) 사진 제공 한국가구박물관, 문화재청

Great Things Take Time

스카치위스키는 맥아와 물, 효모의 화학작용으로 탄생한 증류주다. 처음에는 무색무취의 진한 알코올 용액이지만 이것이 오크통에서 잠을 자고 나면 '금빛 생명수'로 바뀌는 것이 스카치위스키의 신비. 위스키 원액과 나무가 서로 소통하는 동안 꽃, 벌꿀, 바닐라, 과일, 향신료 등 다채롭고 강렬한 향미를 입게 된다. 12년, 17년, 21년, 30년... 스카치위스키 라벨에 표기한 '연산'이 바로 '오크통 숙성 시간'을 의미한다. 최소 3년이 지나야 스카치위스키라는 명패를 달 수 있는데, 발렌타인 같은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흥미로운 건 이 숫자가 병에 든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숙성 연도가 짧은 위스키의 연산이라는 점이다. 21년산 발렌타인은 최소 21년 이상 숙성한 위스키로 만들었다는 얘기. 시작은 분명하지만 끝은 명확히 가늠할 수 없다. 마스터 블렌더의 선택에 따라 40년, 50년, 때론 한 세기를 넘어 증류소의 기원과 함께하는 올드 캐스크가 섞였을 수도 있다. 분명 더 오래 숙성한 위스키일수록 가치가 높다. 해마다 2%의 원액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를 숙성 창고를 지키는 천사들이 그 대가로 마시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른바 '천사의 몫'. 발렌타인 30년은 내용물의 60%를 이미 천사가 마신 셈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기다림의 미학은 비단 스카치위스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스카치 위스키처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완성한 선조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국보로 지정된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20여 년에 걸쳐 장인의 손길과 숨결이 깃든 완성체로 그 기품과 아름다움,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설립부터 개관까지 십수 년의 땀과 열정이 스며든 한국가구박물관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유례없는 방대한 소장품을 통해 한국 전통 가구와 생활공간을 국내외에 소개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의 대명사 발렌타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 건축물과 고가구의 이색적인 만남. 나라도, 기원도, 형태와 기능도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시간의 가치가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전한다.

발렌타인 17년과 한국가구박물관

성북동에 위치한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의 전통 목가구를 재료별, 용도별, 출처별로 분류해 전시한 특수 박물관이다. 궁집, 사대부집, 공간채와 부엌채 등 한국의 옛 가옥 10여 채를 옮겨놓고 그 안에서 고가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감 나게 보여주는 체험형 공간. 창경궁의 기둥과 기와, 명성황후 사촌오라비 집의 공간채 일부를 가져왔으며 특히 사대부집은 순종의 두 번째 왕비 순정효황후 사가를 옮겨 지어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의 백미는 궁집의 지하층에 자리한 상설 전시장으로 정미숙 관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2000여 점의 조선 후기 목가구 중 500여 점의 컬렉션이 전시돼 있다. 한국가구박물관은 1993년 명칭 등록을 시작으로, 한옥을 옮겨 짓고 조정과 실내장식을 마무리하기까지 약 17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발렌타인 17년의 풍부한 향과 매혹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과 비슷하다. 발렌타인 17년은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공수한 40여 가지 최상급 원액을 발렌타인만의 블렌딩으로 재탄생시킨 것. 위스키 숙성에 버번 오크통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위스키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맛인 바닐라와 단맛에 기여해 세련된 풍미를 가져다준다.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보디감을 지닌 발렌타인 17년은 우아하고 균형 잡힌 맛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례와 균형, 절제미가 어우러진 한국 전통 가구의 아름다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가구박물관은 2010년 G20 정상 배우자의 공식 오찬 장소로 선정돼 화제가 되었으며, CNN 웹사이트에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꼭 가봐야 할 곳 1순위로 언급했을 정도로 한국의 전통 주생활 문화를 빼어나게 재현한 역사적 공간이다. 2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발렌타인 역시 스코틀랜드의 상징적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발렌타인 21년과 석굴암 & 불국사

토함산 중턱에 인공으로 석굴을 조성하고 그 안에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보살상과 제자상, 금강역사상 등 총 39체의 불상을 조각해 넣은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의 최고 걸작이다. 천원지방(天圓地方) 원리를 구현해 전실은 사각형, 주실은 원을 형상화했는데 각각의 크기와 비례가 완벽하며 자연 속에서 1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습도 조절과 통풍에 얽힌 과학은 지금도 풀지 못한 신비로 남아 있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불국, 이상적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놓은 것으로 심오한 불교 사상과 건축 예술이 어우러진 기념비적 사찰 건축물이다. 정문 돌계단인 청운교와 백운교는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정교한 축대는 자연과 만난 인공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은 간결하면서도 장중한 멋이 있고, 다보탑은 복잡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꿀의 달콤함에 사과와 꽃 향을 더한 풍부한 아로마, 스모키한 맛과 세리 오크통의 여운으로 완속미까지 느낄 수 있는 발렌타인 21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21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짓는 데 걸린 시간과 맞먹는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한국의 국보를 넘어 1995년 12월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발렌타인 역시 스코틀랜드를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스카치위스키로 위상을 높였다. 지속적으로 권위 있는 주류 품평회의 상을 휩쓸며 그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발렌타인의 5대째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의 숭고한 역할에서 기인한다.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는 시대를 초월해 발렌타인 위스키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블렌딩 비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그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발렌타인의 살아 있는 수호자다.◇

경주 황룡사지

황룡사에서
출토된 유물

현존하는 가장 큰 범종,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비천상

The Time of Ballantine's

위대한 것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자연이 선사한 축복이자
마스터 블렌더의 기술과 정성으로 빚어낸 발렌타인 위스키, 우리 조상의 탁월한 심미안과
장인정신을 오롯이 담은 전통 문화재는 이 '시간의 가치'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에디터 이재연(jyeon@noblesse.com) 사진 제공 문화재청

Great Things Take Time

스카치위스키는 맥아와 물, 효모의 화학작용으로 탄생한 증류주다. 처음에는 무색무취의 진한 알코올 용액이지만 이것이 오크통에서 잠을 자고 나면 '금빛 생명수로 바뀌는 것이 스카치위스키의 신비. 위스키 원액과 나무가 서로 소통하는 동안 꽃, 벌꿀, 바닐라, 과일, 향신료 등 다채롭고 강렬한 향미를 입게 된다. 17년, 21년, 30년... 스카치위스키 라벨에 표기한 '연산'이 바로 '오크통 숙성 시간'을 의미한다. 최소 3년이 지나야 스카치위스키라는 명패를 달 수 있는데, 발렌타인 같은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흥미로운 건 이 숫자가 병에 든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숙성 연도가 짧은 위스키의 연산이라는 점이다. 17년산 발렌타인은 최소 17년 이상 숙성한 위스키로 만들었다는 얘기. 시작은 분명하지만 끝은 명확히 가늠할 수 없다. 마스터 블렌더의 선택에 따라 40년, 50년, 때론 한 세기를 넘어 증류소의 기원과 함께하는 올드 캐스 크가 섞였을 수도 있다. 분명 더 오래 숙성한 위스키일수록 가치가 높다. 해마다 2%의 원액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를 숙성 창고를 지키는 천사들이 그 대가로 마시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른바 '천사의 뿔'이다. 발렌타인 30년은 내용물의 60%를 이미 천사가 마신 샘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기다림의 미학은 비단 스카치위스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스카치 위스키처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완성한 선조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규모와 위상 면에서 신라시대 제1의 사찰로 보이는 황룡사와 현존하는 가장 큰 범종으로 화려한 문양과 조각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성덕대왕신종을 완성하는 데는 각각 17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일맥상통한다. 동양과 서양,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이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것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렌타인 17년과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소재 황룡사지(사적 제6호)는 6세기 신라시대에 창건해 13세기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진 황룡사의 터다. 진흥왕 14년인 553년 새로운 궁궐을 짓기 위해 터를 닦았으나 이곳에서 황룡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고쳐 짓기 시작해 17년 만인 569년에 윤곽을 완성했다. 황룡사는 신라 호국 신앙의 중심지로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의 불교관을 대변한다. 경내에 신라 3대 보물 중 하나인 장유존상(5m 크기의 삼존불상)과 황룡사구층목탑(높이 82m 정도로 당시 가장 높은 탑으로 사료됨)이 자리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자랑했다.

황룡사는 17년에 걸쳐 신라인의 염원으로 한 단씩 쌓아 올린 인고의 결과다. 이는 발렌타인 17년 위스키를 만드는 정성과 시간에 비유할 수 있다. 발렌타인 17년은 최고급 스카치위스키를 향한 스코틀랜드인의 사명과 조지 발렌타인의 천재적 블렌딩 기술이 탄생시킨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다.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공수한 40여 가지 최상급 원액을 블렌딩한 우아하고 균형 잡힌 맛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조지 발렌타인 가문의 제조 비법에 따라 버번 오크통에서 위스키를 숙성시키는데, 이것이 위스키의 품질을 결정하는 맛인 바닐라 향 단맛에 기여해 세련된 풍미를 더해준다. 이 황금빛 액체가 선사하는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보디감은 '위스키 예술의 절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200여 년 전에 시작한 이 위대한 스카치위스키 유산을 현 세대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축복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도 최근 황룡사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해 우리에게 진귀한 유산을 돌려주기로 했다. 경주시가 황룡사지에 목탑 모형 전시실과 홍보 영상관 등을 갖춘 연구 센터를 착공하기로 한 것. 10년 후를 목표로 황룡사 복원 설계를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발렌타인 30년과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은 현존하는 가장 큰 종(높이 3.75m, 입지름 2.27m, 두께 11~25cm)으로 봉덕사에 처음 달았고 하여 봉덕사종, 아기를 시주해 넣었다는 전설에 따라 아기의 울음소리를 본떠 에밀레종이라고도 부른다. 신라 경덕왕이 부왕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의 아들 혜공왕(771년, 혜공왕 7년)이 뒤를 이어 완성했다. 구리 12만 근(약 27톤)을 들인 이 종은 크기는 물론 양식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종의 맨 위쪽에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음통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는 용머리 모양으로 조각하고 몸통에는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비천상 등을 유려하게 새겼으며 입 부분에서는 당초문 띠를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공예품으로 추앙받는 성덕대왕신종은 2세대 동안 30여 년 세월에 걸쳐 만들었다. 세리, 꿀, 꽃, 바닐라, 오크 향이 감미롭게 어우러지며 우아한 기품과 완숙미, 오래도록 긴 여운을 선사하는 최고의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 30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맛먹는다. 혜공왕이 선대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과업을 완수한 것처럼, 발렌타인 30년에서는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숭고한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는 시대를 초월해 발렌타인 위스키가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하는 블렌딩 비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발렌타인의 살아 있는 수호자다. 성덕대왕신종과 발렌타인 30년은 장인정신과 세월의 깊이를 오롯이 담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로 소통한다. 심금을 울리는 범종의 메아리처럼 발렌타인 30년 역시 단 한 모금만으로도 가슴속에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DIGITAL MAGAZINE LAUNCH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더 풍부해진 콘텐츠로 발렌타인을 즐기다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 런칭

발렌타인 매거진은 지난해 11월 고객들의 스마트해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독할 수 있는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을 런칭했다. 2011년부터 발행된 '발렌타인 매거진'은 발렌타인의 신제품 런칭, 챔피언십, 테이스팅 클래스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발렌타인의 역사와 브랜드 헤리티지까지 두루 아우르며 발렌타인만의 특별한 서사를 전해 오고 있는 매거진이다.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은 애플 앱스토어 '뉴스 가판대'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퍼블리싱 서비스 분야 1위 앱, '탭진(Tapzin)'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기존 매거진에서 소개되었던 콘텐츠 중 한정된 지면의 한계로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콘텐츠를 태블릿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면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발렌타인 매거진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예정이다.

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매거진을 읽다가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지면에 다 실지 못했던 현장 사진들을 손으로 넘겨 가며 볼 수도 있다. 또 디지털 매거진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따로 진행하는 등 앞으로 발렌타인 매거진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은 4호부터 정식으로 구독할 수 있다.



>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 이용 방법

방법 1 |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나 애플 앱스토어(애플 기기 이용자)에 접속한 후, 영문으로 'Ballantine's magazine' 또는 한글로 '발렌타인 매거진'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방법 2 | '탭진(Tapzin)' 어플을 설치한 후, '발렌타인 매거진'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탭진의 시사/경제/재테크 또는 패션/스타일 또는 스포츠 카테고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추천 카테고리에서도 발렌타인 매거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 중 이미지에 있는 **재생 버튼** (▶) 을 터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프레임 버튼** (🖼️) 을 터치하면 더 많은 사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렌타인 매거진을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allantine's



BALLANTINE'S MEMBERSHIP CLUB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이드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의 장으로써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품격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입 안내

발렌타인이 발급한 인증번호를 아래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 _www.ballantinesmc.com

문의 _발렌타인 마케팅팀 02-3466-5700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혜택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골프에서 응용한 독특한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입니다.
회원 분들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샷(Shot)이 주어지며,
샷 적립에 의한 등급에 따라 발렌타인만의 독특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클럽 내의 유용한 소모임을 통해 인맥의 폭을 더욱 넓히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발렌타인 제휴 매장 혜택

발렌타인과 제휴 매장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매장들과의 제휴를 통해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께 더욱 특별한 서비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제휴 매장 할인, 프로모션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또한 바 이용 후기를 올리실 경우 20샷이 제공됩니다.

02

발렌타인 제휴 바 예약 서비스 제공

발렌타인 제휴 바를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약(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휴 바 페이지의 '예약하기'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추후 이용 후기를 올려 주실 경우 다양한 추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03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및 다양한 행사 초대

A.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초대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는 위스키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 브랜드 스토리부터
위스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테이스팅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클래스에 참가하신 분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발렌타인 관련 행사 주최

발렌타인은 신제품 출시 행사 및 다양한 럭셔리 파티를 준비 중이며, 신제품
런칭 시에는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회원 분들께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기 플레이어 이상 등급 회원은 행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이벤트에는
본인을 포함한 동반 1인이 초대되고 100샷이 차감됩니다.

04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내 다양한 이벤트 참여 및 스폰서 활동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월별/분기별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프리미엄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스폰서 요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파티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샷 차감은 없습니다.

05

회원 가입 시 멤버십 클럽 카드 발급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시는 회원 분들께 제휴 바 등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원 번호가 담긴 발렌타인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www.ballantinesmc.com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7th. vol. Ballantine's Magazine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콘텐츠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발렌타인

발행일
February 10, 2014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ballantinesmc.com

Planning & Design
(주)헤즈
www.heaz.co.kr

Edit
(주)헤즈

Photographer
송상섭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 매거진〉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본 매거진은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여
무염소 표백필프(ECF)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